

9-28-2012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 연구: 남부플로리다 연합감
리교회를 중심으로

Jeong Soo Lee 이정수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정수,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 연구: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2.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 NURTURING SYSTEM BASED ON COMMUNITY
ECCLESI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FLORIDA**

written by

JEONG SOO LE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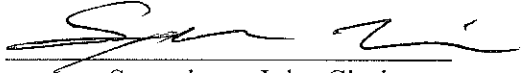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eungkeun John Choi


Seyoon Kim

September 28, 2012

**A NURTURING SYSTEM BASED ON COMMUNITY
ECCLESI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FLORIDA**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EONG SOO LEE

SEPTEMBER 2012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 연구
-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이 정 수

2012년 9월

Abstract

A Nurturing Systems Based on Community Ecclesiolog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Florida

Jeong Soo Lee

Doctor of Ministry

2012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o present a model of a nurturing system based on community ecclesiology, with an example of its application in a local church,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Florida.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chapter 2 explores a biblical and theological concept of the church as community. Chapter 3 describes a nurturing system in terms of its definition, educational purpose, and educational context. It then discusses four dimensions of the system, those of the mind, emotions, will, and spirituality. Chapter 4 scrutinizes nurturing systems that have been used today in Korean churches and then describes how churches could be healthier through nurturing systems.

Chapter 5 describes the history, vision, and current state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Florida and explains the nurturing system it has used. Chapter 6 examines the church's system and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ing it. In conclusion, chapter 7 summarizes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Seungkeun John Choi, PhD
Seyoon Kim, PhD

감사의 글

먼저 이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타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논문은 작성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의 논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권문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의 부심을 맡아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최승근 교수님, 김세운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작성 과정 중에 도움을 주신 풀러신학교 서울 사무실의 김태석 목사님과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기도와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이금자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목회를 시작하고, 8년간의 이민 목회와 지금 아름다운 교회의 개척까지 저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 다음으로 어머니 이금자 권사님 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아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대로 작은 효를 행한 것 같은 마음에 기쁘기만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그 길을 훈련하고 다듬어주신 한정석 감독님, 분당 불꽃교회 전용재 감독님과 기타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 덕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후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이 논문의 근거가 되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장찬영 목사님과 NET Ministry 모든 Member들, 또한 저의 고향인 포천 일동감리교회 정확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이 마무리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새롭게 시작한 아름다운 교회의 개척 멤버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배우고 익힌 대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우리 모두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반려자로, 목회의 내조자로, 늦깎이 학생의 학부형으로, 함께 십자가 사명의 길에 동행하는 동지로, 때로는 눈물로, 위로와 격려로, 저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내 신영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문 초록에 도움을 준 나의 사랑하는 차남 재성이와 지금은 건강환 대한의 남아가 되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남 재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아들을 위해 언제나 사랑해주시고 묵묵히 지켜주셨던 지금은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계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진영 장로님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12년 9월 이정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개요	3
제 2 장 공동체 교회론	5
제 1 절 교회론의 기본 개념들	5
1. 교회의 정의	6
2. 교회의 사명	8
3. 교회의 구조와 기능들	9
4. 전통적 교회론의 한계와 문제점	9
제 2 절 공동체 교회론	11
1. 공동체란 무엇인가?	11
2. 공동체 교회론	12
가. 공동체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	13
나. 공동체 교회의 모형인 소그룹	14
다. 공동체 교회론	15
제 3 절 요약	17
제 3 장 성인 양육 System	18
제 1 절 성인양육 System과 신앙성장이론들	18
제 2 절 오스머(Richard R. Osmer)의 신앙의 네 가지 영역	21
1. 지성적 영역	22
2. 감성적 영역	24
3. 의지적 영역	25
4. 영성적 영역	26

제 3 절 성인양육 System의 네 가지 큰 흐름	28
1.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29
2. 일대일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양육 System	31
3.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33
4.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34
제 4 절 요약	37
제 4 장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양육 System	39
제 1 절 한국 교회 양육 System의 한계 및 문제점	40
1. 일반 성도들의 문제	40
2. 목회자의 문제	42
3.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려할 점들	44
제 2 절 공동체적 교회 세우기	45
1. 공동체적 교회의 비전 세우기	46
2. 공동체적 교회의 필수적 요소들	47
3. 공동체적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49
제 3 절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구축 방법	50
1.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목적 세우기	51
2.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원칙	52
3.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방법론	53
가. 소그룹(Small Group)	53
나. 팀 사역(Team Ministry)	55
다.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	55
4.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의 실례	57
제 4 절 요약	59
제 5 장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의 성인 양육 System	61
제 1 절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역사와 비전	62

1. 교회의 역사	62
2. 교회의 비전	64
제 2 절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적 상황	65
1.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성도 분석	65
2.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역들	66
3.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지역적 상황	70
제 3 절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	70
1. 제 1 단계(변화반)	72
2. 제 2 단계(성장반)	73
3. 제 3 단계(성숙반)	73
4. 기타 프로그램 들	74
5. 몇 가지 비평들	74
제 4 절 요약	75
제 6 장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미래적 비전	77
제 1 절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평가	77
1. 구조적 특징	77
2. 기초의 강조	78
3. 수정 보완할 점들	79
제 2 절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제언	80
1.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목적	81
2.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원칙들	81
3.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방법론	82
4.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제언	86
가. 양육 1단계 기초 제자 훈련 과정(변화)	87
나. 양육 2단계 성장 과정(비전 클래스)	88
다. 양육 3단계 평신도 지도자 양성 과정(성숙)	89
라. 공통단계 양육 프로그램(주일 성서학당)	90

5. 공동체 교회를 위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운영 ...	92
가. 리더십 그룹 합류 규정	92
나. 각 과정 통과 규정	92
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강조	93
라. 특수 과정들	93
6. 요약	93
 제 7 장 결론	 99
 참고 문헌	 103
 Vita	 106

표 목 차

<표 1> 신앙성장에 관한 중요한 이론들	20
<표 2> 신앙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따른 교수방법과 양육프로그램	28
<표 3> 일대일만남을 중심으로 한 온누리 교회의 양육 System	32
<표 4> 멘토링을 중심으로 한 예전교회 양육체계 도표	34
<표 5>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성인회중(20대 이상) 분석표	65
<표 6>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역 현황	69
<표 7> 개인 주간 신앙생활 점검표	85
<표 8>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양육 1단계 기초 제자훈련 과정	87
<표 9>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양육 2단계 성장 과정(비전 클래스)	88
<표 10>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3단계 평신도 지도자 양성 과정(성숙)	89
<표 11>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공통단계의 양육프로그램	91

그림 목 차

<그림 1> 사랑의 교회 양육 System	30
<그림 2> 터치 셀그룹 커리큘럼 야구장(Touch Equipping Track) 도표	36
<그림 3> House Diagram 구조	58
<그림 4>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71
<그림 5>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9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최근 본 연구자는 주목할 만한 통계들을 접하게 되었다. 하나는 개신교인의 숫자 감소에 대한 여론조사 통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 3대 종교의 신뢰도에 관한 통계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불교 쪽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역시 한국 내 3대 종교의 신뢰도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인구센서스 통계의 자료를 보면, 1995년 전체인구 4460만명 중 19.6퍼센트인 876만명의 크리스천이 2005년에는 4727만명 중 861만명이 개신교인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구는 267만명 늘었지만, 개신교인은 14만명이 줄어든 것이다.¹⁾ 또 다른 통계는 기윤실이 발표한 개신교의 사회 섬김 지수와 신뢰도에 관한 것이다.²⁾ 이 통계에 의하면, 국민들 중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3.6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19.1퍼센트로 나타났다. 세 번째의 통계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조사 통계³⁾인데, 신뢰도는 카톨릭이, 영향력은 개신교가, 그리고 사회 기여도는 불교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통계들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개신교인의 숫자와 대 사회적인 신뢰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나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가장 큰 종교가 개신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영향력은 크지만, 그

1) 국민일보, 2008년 12월 9일자, 개신교 인구가 861만 명이라는 인구센서스 조사와 1,200만명 신자라는 한국 개신교의 발표의 차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2) 크리스천 뉴스위크, 2010년 3월 19일자, 기사에 의하면 2008년부터 조사된 신뢰도는 약간이나마 증가한 수치이나, 아직도 그 신뢰도는 카톨릭과 불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3) 경향신문, 2011년 11월 1일자, 이 통계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가장 최근의 조사이고, 각 종교별로 구분된 조사 결과 때문이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통계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개신교 선교와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들 앞에 한국 개신교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보는 데는 몇 가지 관점들이 있다. 먼저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성장 중심주의, 기복적 신앙, 물량주의의 흐름 가운데 복음의 정신과 성경적 신앙관이 훼손되고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되고 자기중심적이며 교회 안에서 종교 소비자의 차원에 머물고 있는 점⁴⁾과 2007년 아프카니스탄 비전 트립팀의 납치사건 이후 급등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이를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부흥과 성장의 여름을 지나 쇠퇴와 침체를 겪는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⁵⁾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의 위기를 보는 두 번째 관점은 교회론적인 관점이다.⁶⁾ 이는 교회의 위기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한 목회자와 성도들로 인한 위기로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그 원형으로 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이러한 교회는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본질과 목적을 상실하고, 공동체성이 훼손된 교회는 교회의 위기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보는 세 번째 관점은 양육 체계에 관한 관점⁷⁾이다. 개 교회마다 성경공부, 제자 훈련 등의 양육 System을 가지고는 있지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육 System에 대한 비전 및 관점의 소홀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성인교육학 이론에 근거한 발달 체계 및 교육 이론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양육 프로그램과 단순히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 양육 프로그램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러나 위기

4) 권문상, *부흥 어제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5.

5) 이원규, *종교 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21-23.

6) 황준석,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새가족 양육체계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1-4

7) 최영태,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양육체계*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29-77.

는 또 다른 기회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 위기의 해법은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근거로 한 공동체적 교회론의 정립과 이에 근거한 양육 System을 정비하고 이 양육 System을 통한 이 시대, 이 상황을 바꾸어 나갈 새로운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식 속에 연구자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근처, 포트 로더데일에 위치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담임: 장찬영 목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교회는 본 연구자에게 교회에 드나드는 모두가 행복한 교회, 그 교회로 인하여 그 지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다가왔다. 이 교회의 특징은 양육 System이 목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의 전체목적이자 비전이며, 이 양육 System을 거쳐 세워진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기는 공동체성에 근거한 교회론과, 이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양육 System을 통하여 성숙한 크리스천의 배출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를 위한 교회의 양육 System을 체계화하고 그 목회의 전략들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개요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공동체적 교회론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본 연구자가 짧게나마 사역했던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를 연구하면서 얻은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주된 관심과 범위는 성경에 근거한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이 어떤 것인지 밝히는데 있다. 본 논문이 교회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주제,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제 2장에서는 교회론을 논의한다. 교회론의 기본 개념들과 전통적인 교회론들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하고, 특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

적한 뒤 성경적 공동체적 교회론을 언급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성인양육 System을 다룬다. 많은 교회가 성인 신앙발달 이론과 교육학적 이론들을 무시한 채 양육 System을 개발해 왔다. 그래서 기존 교회의 양육 System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학적인 성인 양육 System을 근거로 한 양육 System을 세우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양육 System을 다룬다.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비전, 그 필수적 요소들을 다루고 공동체적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제 5장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성인 양육 System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자가 공동체적 교회의 한 표상으로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와 교회의 양육 System을 소개하고 성도들과 목회적 상황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의 기초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의 미래적 비전을 다룰 것이다. 여기에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을 먼저 분석 평가하고,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새로운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양육 System을 제안할 것이다.

제 7장에서는 논문의 요약과 제언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공동체 교회론

건축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이다. 그 설계도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설계도는 건축의 기본이요,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자는 여기에서 건축가의 설계도와 같은 교회론을 먼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은 곧 목회철학이요 목회방향이 된다. 목회자들에게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목회철학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교회가 시대마다 유행하는 목회 방법론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교회론은 무엇인지 논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교회론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 시대의 공동체적 교회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교회론의 기본 개념들

교회론의 첫 번째 근거는 교회(ecclesia)⁸⁾라는 특수한 용어에 기초한다.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이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명칭과 제도는 신약성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구약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히브리어 “하나님의 성회(*Kahal Yahweh*)”라는 용어가 신약의 희랍어 “하나님의 교회(*Ekklesia tou Theou*)”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으로 통용되었고, 오늘날 간단히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⁹⁾

8) Hans Küng,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84-86. 독일어 Kirche, 영어 Church의 어원은 ‘*kyrike*’로서 ‘주님께 속하는’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주님께 속하는 집”이라는 뜻이요, “주님(Kyrios)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9) Ibid., 84.

교회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처럼 예배당이나 성당과 같은 장소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회중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신약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는 장소의 의미와 회중 모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자.

1.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교회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질문되어왔고 지금도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교회의 본질을 연구할 때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교회에 대한 어원적 접근이다.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다.¹⁰⁾ 에클레시아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살전 1:1)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회당(synagogue)이라고 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기인되었다. 사도 바울은 회당 유대인들이 점차 기독교인들을 배척하던 상황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대교인들이나 다른 헬라의 이단 종파들의 공동체와 구별하고 이방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 당시에 헬라 도시에서 ‘선택된 자들의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던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에크(*εκ*, 밖으로)와 칼레오(*καλεω*, 부르다 혹은 소환하다)의 복합어인 에칼레오(밖으로 불러내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분리시켜 밖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다.¹¹⁾ 이러한 어원적 의미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모임임을 알 수 있다. 이 모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벧전 2:10),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 “하나님의 성전”(고전 6:9), “그리스도의 신부”(고후 11:2),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 3:15), “하나님의 양무리”(벧전 5:3-4), “하나님의 밭”(고전 3:5-9), “신령한 집”(벧전 2:5) 등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¹²⁾ 이처럼 사도들은 교회가 무

10) Gerhard Kittel and Gerhard Fridrich, *신약성서 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1986), 352.

11) Robert L. Saucy,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2.

12) Paul S. Miniear, *Image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The

엇인가를 설명할 때 신학적인 접근보다 여러 가지의 이미지들을 통해 교회의 정체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이미지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여러 이미지 중 어떤 한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교회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교회에 대한 이러한 여러 이미지 중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이미지는 교회에 대한 실제적이고 완전한 표현이라고 보았다.¹³⁾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골1:18),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합을 강조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보여주고 통치하시는 유기체(organism)다. 그러므로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생명력이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적 이미지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교회가 정적이거나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체적(organic)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⁴⁾ 즉,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살과 피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육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에 대한 유전적(genetic) 유비는 적합하다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방식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유전학적 이해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조와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DNA를 공유함으로써 실천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소

Westminster Press, 1960), 28.

13)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rdmans, 1996), 557.

14) Howard A. Snyder,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12-13.

15) Ibid., 12.

명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며¹⁶⁾, 그 몸의 모든 다양한 복잡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나타내는 것이다.¹⁷⁾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2.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과 그 맥을 함께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정체에 대한 물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로 귀결된다면 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가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이미, 그러나 아직”으로 특정 지워지는 교회의 기간에 세상에 속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오는 세상의 삶’, 영생¹⁸⁾을 맛보도록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하워드 스나이더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고백(마 16:16)’과 그 분과의 ‘위대한 동일시(Great identification, 요 20:21)’를 결합한다고 말한다.¹⁹⁾ 즉, ‘위대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시며, 해방자라는 것이다. ‘위대한 동일시’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영적 DNA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벧전 2:21).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양육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이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엡 4:13) 이르기 까지 양육하

16) Howard A. Snyder, *교회 DNA*, 57.

17)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 친교, 그리스도의 공화 등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18)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192. 김세윤은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피조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적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본다.

19) Howard A. Snyder, *교회 DNA*, 33-34. 하워드 스나이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고백과 그분과의 위대한 동일시가 ‘위대한 친교’(코이노니아)와 ‘대위임령’(마 28:19-20)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는 것이다.

3. 교회의 구조와 기능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임 받은 공동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계 7장; 엡 1:22)를 말하는 것이며, 그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며, 기다리며,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성도들을 양육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교회는 단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군대이기에 계속해서 훈련받고(성경공부, 제자 훈련 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개인적인 말씀과 기도 훈련 등), 계속해서 움직이고(선교와 나눔 등과 그에 관련된 사역들),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 공동체인 것이다.

4. 전통적 교회론의 한계와 문제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맞서 싸우는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서 교회론을 전개하였다. 어떻게 보면 신성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태어나기만 해도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선교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부패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분별해 내는데 집착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참 교회와 거짓교회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구별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오늘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극복한 개신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을 답습할 수 없는 이유, 즉 전통 교회론의 한계와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해보고자 한다. 먼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무엇보다 세상과 기존질서(구교)로부터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교회는 '참 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루터) '만세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칼빈)이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만 정의하면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되었다고 하는 안도감에 빠져 구원 받은 특권만 누릴 뿐 보냄 받은 자의 소명을 등한히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성도들을 세상과 분리되고 교회 안에 안주하는 무력하고 내향적인 성도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과 구별되는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가에 집착하여 교회론을 균형 잡히게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²¹⁾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참된 표징으로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며 권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교회상에 근거하여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개혁자들이 제시한 교회의 표징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판별하는 최소한의 기준점일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얼마나 화석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 보고 있다. 이 시대에 바르고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양육과 교제와 선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주장한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은 제도적 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대립하는 비제도적인 교회를 강조하면서 교회론을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한 외적 교회와 내적교회,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등 종교 개혁자들의 교회론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고 도무지 실생활과 연결이 되지 않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교회관이다. 이러한 교회론은 당시의 정적인 사회상을 대변하는 정적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이 시대는 생각의 속도로 세상이 변화해가는 디지털 시대요, 모바일 시대이다. 교회론이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교회론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의 부름 받은 교회로서의 특권만 아니라 보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균형있게 제시하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이 바르게 자리 잡아 세상 속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20)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출판사, 1984), 80.

21) Ibid., 82-83.

22) Ibid., 84-85.

제 2 절 공동체 교회론

본 연구자는 전통적 교회론의 정적이며 추상적인 관점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그 한계가 있음을 전술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살펴 볼 것이다. 공동체인 교회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특징을 지녀야 함을 살펴보면서 공동체의 사전적, 성경적 정의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성인양육 System의 필요성을 탐구해 나갈 것이다.

1.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란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한 삶을 함께 영위해 나가는 것²³⁾으로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더한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청지기적 삶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⁴⁾

래리 크랩은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여 마치 허파가 공기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오로지 공동체만이 줄 수 있는 있는 것을 필요로 하며 교회의 미래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 있다²⁵⁾는 말을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신앙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서로 심오한 관계를 유지하며 존재하시는 관계성 속에 우리들이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만약 공동체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죽고 말 것이다”²⁶⁾는 경고를 하였다. 한 마디로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성격을 포함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될 수 없음을 경고한 말이다.

23)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 추, 1998), 59.

24) Ibid., 61.

25)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3), 14.

26) Ibid., 14.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신앙의 공통된 관점을 인격적 관계로서 나누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가치관과 삶의 실체에 있어서 '함께 일치'(Com + Unity)를 향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라 하겠다.²⁷⁾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체 교회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동등하고 사랑 안에서 상호 의존적이며, 존중의 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원형으로 이 땅 위에 세워졌다.²⁸⁾ 그러므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삼위일체의 원형을 따라 공동체로서 존재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각 지체로서의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말한다.²⁹⁾ 이 점에 있어서도 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로서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담당하시면서(엡 4:3) 주님의 교회가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³⁰⁾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화,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상황은 점점 더 개인을 고립시키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자살 문제, 이혼 문제, 각종 갈등과 분열의 문제 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 소그룹 사역들(셀, 목장, 순, 속회, 구역 조직 등)은 교회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여, 주님의 건강한 공동체인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

튼튼히 성장하고, 또 지역 속에서 뿌리내리며, 건강함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교회의 대부분은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공통적인 사역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은 작지만 강하고, 힘 있는 교회 사역의 근거가 된다.

27)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61.

28) 권문상, *부흥 어깨인 1907*, 257.

29)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요 2:21, 롬 12:4-5, 고전 10:7;12:12, 엡 1:23; 2:16; 4:4,16, 골 1:18 등

30)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191-193.

가. 공동체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적으로 '가족적'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게 하셨다.³¹⁾ 12지파로 대표되는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씨족문화와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족적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며,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열방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³²⁾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광야에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좇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한 모습 등에서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신약에서는 '가정교회'로 대표되는 공동체 문화가 있다. 한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집', 곧 가정(행 18:7-8, 20:8)이었다. 여기서 사도들은 가르쳤고, 기도했으며,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었다. 이외에도 많은 구절을 통해 신약의 교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유를 권문상은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당시 사회는 완전한 종교적 자유가 없었기에 그 박해를 피해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당시 문화는 가정 중심을 종교 행사 문화였기 때문이다.

셋째, 초대 교회 당시 가정은 30-4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었다.³³⁾

이러한 가정 교회의 모습은 구성원의 친밀도를 높여 가족적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한 가정에서 모인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통하여 모인 제자들의 하나 됨("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 성장을 나타내고 경험하였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함께', '서로', '피차', '마음을 같이 하여', '협력' 등의 단어들은 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의 성격과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3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57.

32) 개역개정판 성경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33)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262-263.

나. 공동체 교회의 모형인 소그룹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공동체 교회의 모형이 되는 '가족적 공동체'와 '가정 교회'는 소그룹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오늘날 건강하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소그룹을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속회, 구역, 목장, 순, 셀, 동산 등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소그룹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소그룹에 대해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채이석 목사와 이상화 목사의 의견을 소개한다.

우리는 소그룹 중심 양육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그룹이야말로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모델입니다. 소그룹은 일정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찾기 위하여 3-12명의 크리스천들이 상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나눔의 모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었던 코이노니아가 바로 바람직한 소그룹의 전형인 것입니다.³⁴⁾

이러한 소그룹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그것은 첫째, 은사 발굴에 유리했다. 일반 성도들의 잠재 능력과 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 교회가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유익을 주었다. 그리고 둘째, '공동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이다. 공동 식사는 구성원들의 깊은 교제를 용이하게 해 주고, 공동체 의식을 발전 강화시키는데 용이하다. 또한 셋째, 성도들의 소유를 나눠 갖게 함으로 한 가족 의식을 심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공산주의 제도가 아니었다. 이 제도는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³⁵⁾ 이외에도 공동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는 장이 될

34)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6-7.

35) 권문상, *부흥 어깨인 1907*, 264-266.

수도 있다.

또한 Gilbert Bilezikian은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해져서 서로를 알고, 돌보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점검해 주며 함께 성장한다.³⁶⁾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소그룹은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관계의 훈련을 통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 그 관계 속에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때로는 갈등과 아픔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따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치유와 회복,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다. 공동체 교회론

공동체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의 원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요, 또한 그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다섯 가지 기능, 곧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증거라는 기능을 소그룹이라는 틀을 통해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통해 양육하여 헌신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여 이루실 Universal Church를 세워야만 하는 궁극의 목적(Vision)을 가지고 있는 사명 공동체요, 비전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교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 여기에는 교회의 기능들인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증거를 통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곧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22)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 모든 만물이 회개(벧후 3:9)하고,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딤후 2:4),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궁극적인 합 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사 43:21; 요 4:23) 그 예

36)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두란노출판부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67.

배를 통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회복되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 받는다. 예배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예배는 교회와 신앙의 기본으로 그 기초를 의미하는 요소이다.

또한 교회는 양육 공동체이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지체들을 낳는다. 교회는 우리를 낳고 아버지의 뜻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갈 4:19)³⁷⁾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씀과 기도, 또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합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통한 훈련을 거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또 다른 형제요 자매가 된 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며, 제자가 되어가는 길의 동반자로 이끌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양육 System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 흠어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공동체³⁸⁾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증인(행 1:8)으로, 어두운 곳에 빛으로, 썩어가는 곳에 소금(마 5:13-16)으로, 영육 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내가 받은 것들(물질, 재능, 시간 등)을 나누는 것을 통해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을 받는 데 이르게 하여, 마침내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완전하고 참된, 영원히 존재 할 하나의 Universal Church(계 7:5-17)를 이루는 것이다.

37) 김병철 외 3인 저, *기독교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양서원), 274.

38) 2008년 5월 미국 휴스턴 지역 목회자 세미나 중, 이에 대하여 프라미스 교회(구, 뉴욕 순복음 교회, 김남수 목사 담임)의 항공모함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은 아주 신선하다. 김남수 목사는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이제 즐기고, 서비스를 받으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다시 항구에 돌아올 수 없는 항공모함과 같은 사명공동체로서의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이후 프라미스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제 3 절 요약

본 연구자는 전통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가운데 많은 장점과 유익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전통적인 교회론이 추상적이며 정적인 교회론임을 밝힌 바 있다.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론은 이 시대에 적절한 사역을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데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는 단순히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과 장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의 사명 공동체이다. 그리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이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다. 공동체 교회론은 이런 의미에서 전통적 교회론의 대안으로, 또한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장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의 원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요, 또한 그들로 이루어진 한 몸으로서의 신앙공동체이다. 이러한 교회는 다섯 가지 기능, 곧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증거라는 기능과 소그룹이라는 도구를 통해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여 이루실 Universal Church를 세워야만 하는 궁극의 목적(Vision)을 가지고 있는 사명 공동체요, 비전 공동체이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다. 이것이 공동체 교회론의 핵심이요, 그 근거이다.

제 3 장

성인 양육 System

지금까지 논의한 바대로 교회와 성도는 삼위하나님의 원형대로 창조되었고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한다.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기도 하며, 정제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한 순서에 따라 성장하며 예측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존재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주선애 교수는 “교회는 학습자로서의 모든 교인들을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과 개인적 특성과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장단계의 요구와 능력에 맞추어 교육, 훈련시킬 책임이 있는 것이다”³⁹⁾라며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 각 단계별 양육체계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공동체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성인 양육 System에 대한 각 학자들의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인 양육 System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그 필요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각 교회의 다양한 성인 양육 System의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성인양육 System과 신앙성장이론들

양육 System이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이 신앙과 생활과 사역적인 면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거쳐야 할 양육과정을 말한다. 이 양육 System은 각 과정마다 단계적으로 신앙성장 과정에 알맞은 내용과 합리적인 배움의 양을 일정기간

39) 주선애, *성서와 생활*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3), 22.

동안 배우고 훈련받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모든 교인은 이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가운데 참 제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우리의 신앙이 성장, 발전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의 과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성도들은 단순히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남을 뿐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음에도 이에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과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앙 성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양육 System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주방란 교수는 양육 System에 의해 교회의 성인들을 양육했을 때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로, 장년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 오늘날 연령 차이가 16-18년에 불과한 미성년의 교회교육을 위하여서는 영아부로부터 시작하여 대학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서가 구분되고 더구나 분반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연령 차이가 50년 이상이나 되는 성인을 위하여 이러한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커리큘럼에 의해 다양한 커리큘럼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장년교육 모형의 기초인 소그룹에 의한 교육을 가능케 한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교회의 친교와 신앙성장을 경험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되고 효율적인 교육모형이다.⁴¹⁾

이러한 성장의 이해를 위하여 여러 생애발달론자들이 공유하는 발달이론의 원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에는 순서가 있으며, 이러한 순서는 일정하다. 둘째, 발달은 연속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항상 일정하지 않다. 신체와 정신 기능에 따라 발달의 속도는 각각 다르다. 셋째, 발달은 성숙과 학습에 의존한다. 넷째,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다섯째, 발달의 각 측면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발달 개념은 발달 단계를 전제로 하는데, 발달 단계란 발달상의 어떤 과제

40) 허남기, *전교인 제자화를 위한 단계적 커리큘럼의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7) 136-137.

41) 주선애, *성서와 생활*, 70.

의 성취와 특정한 측면의 발달이 강조되는 삶의 기간을 말한다. 각 발달 단계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 그 이전 단계나 이후 단계로부터 구분되며, 그러면서도 발달을 위한 방향이 있고, 새로운 단계는 그 이전 단계까지 이뤄진 발달을 통합한다.⁴²⁾ 성인 신앙 성장에 관한 이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 이론들을 소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신앙성장에 관한 중요한 이론들⁴³⁾

학 자	로버트 콜먼 (Robert E. Coleman)	칼 윌슨 (Carl Wilson)	르로이 에임스 (Leory Eims)
1단계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회개와 신앙	구원 받는 과정
2단계	선택된 사람들과 시간을 가짐으로 훈련을 시킨다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제자가 되는 과정
3단계	훈련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도 훈련과 은사의 감사	사역자가 되는 과정
4단계	이들이 성숙하도록 돕는다.	지도자 양성과 하나님의 감독	지도자가 되는 과정
5단계	시범을 통해 할 일을 가르친다.	재평가와 분리	
6단계	일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여와 파견	
7단계	재생산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변화된 삶과 범 세계에 대한 도전	

<표 1>은 세 명의 개인 신앙성장에 관한 학자들의 논의를 정리, 요약한 것으로

42) 정민승, *성인학습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10), 38-39.

43) 최영태,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성인 양육체계*, 60-61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성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각 개인의 수준에 맞추는 것, 그리고 단계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등이다. 결국 체계적인 양육 System은 신앙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을 획일적으로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각 교회와 현장,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학자의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전해 보면, 먼저 로버트 콜먼이 제시한 성인의 신앙 성장을 위한 7단계의 양육 System에 있어서 양육의 대상인 학습자를 양육자가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양육에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교회에는 양육을 받고 싶은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육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육을 주관하는 담임목회자가 그 기능에 맞는 사역자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분명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칼 윌슨이 제시한 신앙성장을 위한 7단계의 양육 System에 있어서는 회심이전의 단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육 System이란 기존 회심한 신자를 위한 양육 System은 물론이거니와 회심이전의 새 가족을 위한 양육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르로이 에임스가 제시한 신앙성장을 위한 4단계는 회심이전의 단계자로부터 시작하여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신앙양육의 단계를 잘 나타내주는 좋은 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없기에 아쉬운 느낌이다.

제 2 절 오스머(Richard R. Osmer)의 신앙의 네 가지 영역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리처드 R. 오스머(Richard R. Osmer)는 “교수의 기본적인 목적은 신앙이 일깨워지고 지원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있다”⁴⁴⁾고 하면서 여기에서 핵심은 ‘신앙’이라고 피력한 바 있

44)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다. 오스머는 신앙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의 관계이다”로 설명했다. 오스머는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의 “신앙은 여러 개의 면을 가진 입방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앙의 여러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신앙의 각 차원은 그것에 알맞은 교수방법을 사용하여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오스머가 강조하는 신앙의 네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성적 영역 : 우리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념
 둘째, 감성적 영역 : 신앙 안에서 우리를 타인들과의 관계로 인도해 주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셋째, 의지적 영역 :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의지할만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넷째, 영성적 영역 :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와 조절을 제한한다.⁴⁵⁾

신앙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때 두 가지 면에서 양육에 도움이 된다. 첫째는 교육의 목적과 방법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준다. 둘째로, 그것은 양육에서 다양한 교수방법이 왜 중요한 지를 보여준다.⁴⁶⁾ 본 연구자는 오스머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신앙의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에 맞는 교수방법은 무엇인지를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1. 지성적 영역

신앙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의하면 지성적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신념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념은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 교단의 고백들, 교리들, 요리문답 등 신앙이 내포하고 있는 신념의 차원을 교육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관념에 근거가 되어 줄 어떤 특정한 지식들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토의하는 일들이 교수에 포함되어야만 한다.⁴⁷⁾

18.

45)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25.

46) Ibid., 26.

47) Ibid., 33-34.

우리는 이러한 지적인 내용들을 배움으로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기초정보의 단위를 쉼마(도식)라고 불렀다. 주어진 지식의 영역에 관한 쉼마가 풍부하고 복잡할수록 그 영역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은 더욱 깊어진다. 즉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배경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이런 지성적 영역의 양육 프로그램으로는 대표적으로 성경공부를 들 수 있다. 이 성경 공부에는 묵상훈련, 통독, 성경 각 권별 연구, 구속사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공부 등이 있다.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교수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강의법'이 있다. 이 강의법은 우리에게 낯익은 교수 방법이지만, 전적으로 강사에 의한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때때로 질문과 정해진 주제에 대한 토의가 중간 중간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좋은 강의는 청중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며 후에 기억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정보들을 조직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준다.⁴⁹⁾ 강의는 다음의 단계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주제를 정한다.

둘째, 참고자료를 읽고 중요한 것을 노트에 적는다.

셋째, 아이디어 개요를 기록한다.

넷째, 발제 개요를 기록한다.

다섯째, 서론(도입), 본문(전개), 결론(정리)으로 구성한다.

여섯째, 청중을 고려한 좋은 예화들을 기록한다.

일곱째, 시간소요와 필요한 자료 및 기재를 고려한다.⁵⁰⁾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에 대한 연습과 강의 도중에 학습자들의 피드백에 유의해야 한다. 강의 연습에 사용되는 기법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소음을 배경에 두고 강의를 해 보는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연습은 불필요하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연습하지 않고 강의에 임했을 때 찾아오는 자연 발생적이고 자연적인 면의 중

48)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50.

49) Ibid., 53.

50) Ibid., 69.

요성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의 도중에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피드백은 비언어적인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의자를 바꾼다든지 반복해서 헛기침을 한다면 발표를 바꿀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학생들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면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럴 때는 강의를 잠깐 멈추고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이야기나 실례를 들어서 강의의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연속적인 강의에 있어서는 매주 강의를 하는 것보다 다른 교수 방법과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주일은 강의를 하고, 다음에는 토의를 하고, 시청각자료를 동원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⁵¹⁾

2. 감성적 영역

신앙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의하면 감성적 영역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 주신 하나님과 맺은 신뢰의 관계이다. 신앙은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적인 요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마틴 부버가 지적 했듯이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며 사귀는 것이다. 이러한 감성적 영역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수방법으로는 '토의법'이 있다. 학습자들이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양육자로서 우리의 과제는 교실에서 진정한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토의 진행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성인양육 프로그램으로는 일대일 제자훈련, 멘토링,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이 있다.

독일의 교회성장연구소의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전 세계 66개국 10,000여 개의 교회를 설문조사해서 얻은 4,200만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성공적인 소그룹 모임은 “단지 성경의 본문을 토의하는 것을 넘어 그 성경본문을 매일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인적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²⁾

51)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70-74.

52) Joel Comisk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모든 양육은 무엇인가를 느끼고,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지식을 얻는 것 이외에도 배운 것들을 적용할 때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양육은 진정한 양육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을 만들고 싶다면 ‘열린 질문’을 해야 한다. 양육자들은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적용질문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들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질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갈라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면 토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⁵³⁾

- 첫째, 지식 전달보다는 삶의 변화에 목적을 두라.
- 둘째, 열린 질문을 통해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라.
- 셋째, 성경에 대한 적용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설명하라.
- 넷째, 질문의 수를 다섯 개 정도로 제한하라.
- 다섯째, 기관총처럼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묻지 말라.
- 여섯째, 시험문제 같은 질문은 하지 마라.
- 일곱째, 혼란스러운 질문은 피하라.
- 여덟째, 자신의 지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질문은 피하라.

3. 의지적 영역

신앙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의하면 의지적 영역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념이 지적인 영역에 해당되고, 관계가 정적인 영역과 관련된다면, 헌신은 보다 의지적인 차원과 관계된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헌신은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성경의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재해석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즉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비추어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를 다시 나의 이야기(My story)로 재해석할 때 일어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성인양육 프로그램으로는 간증나누기(VIP클럽: 알파코스에서 불신자로 호칭되는 VIP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한 후 명함을 나누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전도프로그램), QT나누기, 독서클럽, 프레스 디아스(TD), 알파 사역의 주

85.

53) Joel Comisky,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90.

말, 성령 수양회와 각종 수련회 등이 있다.

'삶의 이야기의 재해석'하여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것은 헌신교육의 열쇠이다. 성경이야기를 통해 자기 삶을 재해석하여 삶에 적용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양육자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자기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돕는가와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면하도록 돕고, 그를 통해 자기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느냐에 달려있다. 오스머는 이러한 헌신을 위한 다섯 가지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기억하기: 자기 삶의 이야기를 회상해보도록 한다.
- 둘째, 성찰하기: 자기 삶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 셋째, 대면하기: 성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나도록 한다.
- 넷째, 나누기: 성경 이야기 안에서 해석된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
- 다섯째, 결정하기: 새롭게 해석된 이야기를 따라 다른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 ⁵⁴⁾

결국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반추하는 가운데 잘못된 점들은 털어내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지적 영역의 바른 모습일 것이다.

4. 영성적 영역

신앙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의하면 영성적 영역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Mystery)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은 '절적 타자'로 존재하신다. 신앙에 있어서 신비교육은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창조하려는 시도로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⁵⁵⁾ 학습자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 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과 신비의 영역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자체가 영성적 영역의 과

54)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132-152.

55) Ibid., 153-155.

제다.

이런 영성적 영역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수방법에는 오스머 교수가 주장한 비유(metaphor)와 역설(paradox) 이외에도 침묵과 관상 기도훈련 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비유는 듣는 사람들의 기대를 갑자기 뒤집어 놓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상의 삶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간단한 이야기이다. 비유는 청중들의 기대에 갑자기 예상하지 않은 반전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반전의 아주 좋은 예가 탕자의 비유(눅 15:11-32)이다. 독자의 상식은 탕자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며 장자는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이러한 기대를 뒤집어 놓는다. 이렇듯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상적인 삶에서 익숙한 상-벌의 사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종에도 불구하고 보여 진다는 새로운 증거의 틀로 옮겨 간다.⁵⁶⁾

비유적인 교수에 있어서의 역설은 신비를 위한 교육의 중심에 있다. 역설이란 일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역설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 주는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눅 10:29-37)이다. 교수에 있어서 청중의 기본적인 가정에서 역설을 창조해 낸다. 사마리아인들은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이다. 유대인들,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한다. 예수의 이 비유는 이 가정을 반전시키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지하고 있는 전체의 논리에 질문을 던진다. 역설의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두 가지 유형의 교수를 서술할 수 있다. 그 첫째 유형은 재구성(reframing: 학생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재 그들이 사용하는 증거의 틀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서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고, 둘째 유형은 반대 교수(teaching contraries: 학습자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두 개의 반대되는 관점을 소개한 다음 각 관점의 변칙성들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⁵⁷⁾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 성장에 관한 입체적 이론은 참으로 성인양육에 있어 많은 아이디어의 틀을 제공해 준다. 신앙에 있어서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각 영역에 맞는 교수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양육프로그램을 설정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과 같

56) Richard R. Osme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156-158.

57) Ibid., 157-160.

다.

<표 2> 신앙에 대한 입체적 이해에 따른 교수방법과 양육프로그램

신앙의 네 차원	리처드 R. 오스머의 신앙의 네 차원	신앙의 입체적 이해에 따른 교수방법	성인양육프로그램의 예
지성적 영역	신념	강의법	QT모임방, QT 클리닉 성경 통독, 책별 성경공부, 구속사적 관점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공부 교리 연구: 복음 이해,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연구하는 학습 단계-귀납적 성경연구
감성적 영역	관계	토의법	일대일 제자훈련, 멘토링,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
의지적 영역	헌신	이야기 재해석	간증나누기, 독서클럽, Tres Dias, 기독교 세계관 훈련, 기타수련회 등
영성적 영역	신비	비유, 역설	알파 주말 및 성령 수양회 및 중보기도, 묵상훈련 등

<표 2>는 리처드 R. 오스머의 신앙의 네 차원과 이러한 이해에 근거한 교수 방법과 성인 양육 프로그램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개 교회 양육 System과 그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을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이론적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

제 3 절 성인양육 System의 네 가지 큰 흐름

여기서는 현재 한국교회 내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갖추고 양육하는 네 가지의 흐름들이 있다고 설정하고, 그 양육 System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가운데 남부플로리

다 연합감리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양육 System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양육 System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도전과 통찰을 얻기를 기대한다.

한국교회 안의 큰 네 가지의 성인양육 System의 흐름은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일대일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이 네 가지 양육 System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들은 목회자 각자의 목회 철학과 비전,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 또한 양육 System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런 흐름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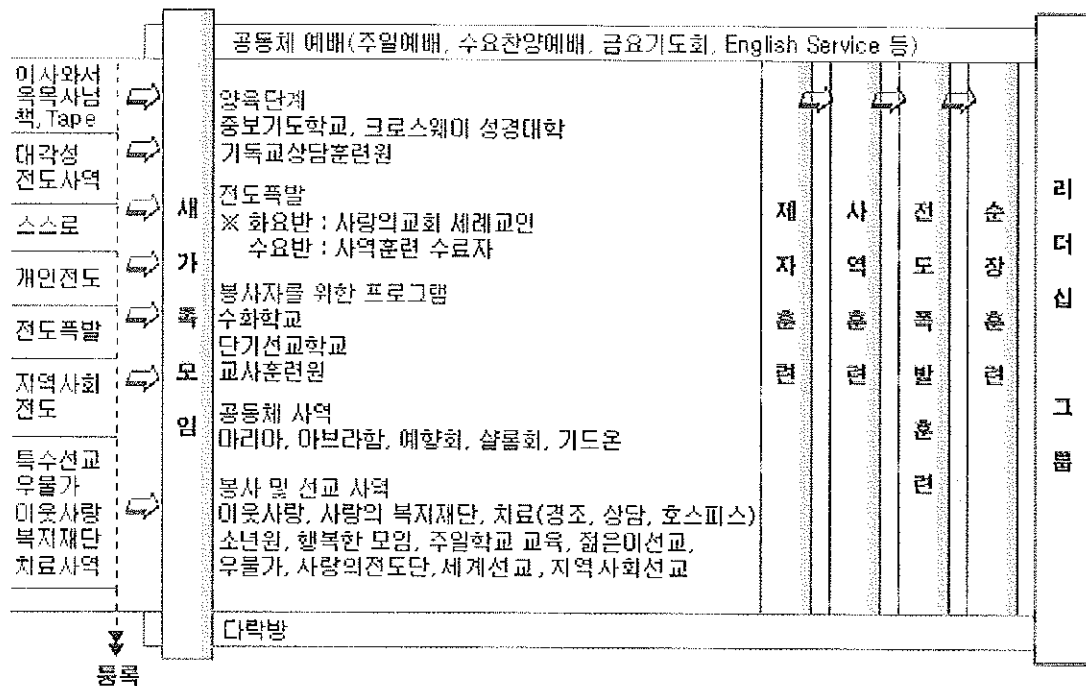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을 지닌 대표적인 교회는 옥한흠 목사의 뒤를 이은 오정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이다. 사랑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 받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료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제자훈련이라는 중심 양육 System을 통해 사역해 왔다. 사랑의 교회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로서의 21세기의 이상과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교회는 사역의 방향을 평신도 목양사역, 다음 세대 교육사역, 지역사회 전도 및 선교 사역, 교회 갱신 지원 사역으로 맞추고 사역하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제자훈련을 받기 위한, 제자훈련 이전의 양육 System을 구축했다. 즉 제자훈련이 근본 양육 System의 기본이지만, 제자 훈련 이전의 단계인 새가족 모임과 양육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 단계를 거친 이들을 제자훈련의 단계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마치게 되면 각자의 은사를 점검하고 이에 따라 각 사역의 현장에 배치되고, 제자훈련 이후 사역훈련 단계를 거친 이들은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고 사랑의 교회의 소그룹 리더인 다락방 순장이 된다. 이렇게 이러한 단계를 거쳐 한 사람의 성도가 사랑의 교회 Leadership

Group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자에 한해서 전도폭발훈련은 필수 과정으로 이수해야 하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새가족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전도폭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 교회 양육 System의 특징은 양육 System이 세분화되어 있다. 그것은 전도(다양한 전도방법) 등을 통해 공동체 예배에 참석한 새 가족이 정착프로그램인 새가족모임을 통해 소그룹 다락방활동을 하게 되며, 그 후 양육(양육단계, 전도폭발, 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 공동체 사역, 봉사 및 선교사역)과 훈련(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폭발훈련, 순장훈련)을 통과하도록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 즉 전도, 정착, 양육, 훈련으로 양육 System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표로 간단히 설명한다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사랑의 교회 양육 System⁵⁸⁾



<그림 1>은 수평적 도식으로 각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을 한 눈에 알아보고 이

58) 사랑의 교회, Online: <http://disciple.sarang.org>

해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성도의 양육 System을 수평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좀 특이한 면이 있다. 이는 양육 System을 구축한 이의 독특한 양육 철학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일대일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양육 System

일대일 양육 System이란 훈련된 한 명의 평신도와 대상자인 한 명의 평신도가 일대일로 만나서 양육을 하는 System을 말한다. 일대일 만남은 양육의 초기단계인 담임목사와 일대일로 양육이 시작되어 담임목사는 일대일을 받은 평신도 가운데 다른 이들의 신앙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평신도들을 선별하여 그들을 일대일 양육자로 삼고 일대일 양육을 위한 교육을 다시 실시한다. 그리하여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새로 등록된 평신도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연결하여 양육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대일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을 지닌 대표적인 교회는 서울 서빙고에 위치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로 하용조 목사가 소천한 뒤로 2010년부터 이재훈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 온누리 교회는 하용조 목사의 목회철학에 따라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평생 훈련을 위하여 온 교인을 제자로 만들며, 온 교인을 사역자로 헌신케 하며, 온 교인을 양육과 선교의 일꾼으로 섬기게 한다는 양육 비전을 가지고, 일대일 양육을 중심으로 7단계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단계/ 경건의 시간(the quiet time)

말씀과 현장 생활에서 말씀의 적용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과 사귀을 갖는다.

2단계/ 일대일 양육과 소그룹 성경공부

양육자와 동반자가 짝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재생산하도록 도전한다.

3단계/ 제자도

한 개인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영위하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킨다.

4단계/ 전도훈련

교인들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 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5단계/ 지도자론

기본적인 신학훈련으로써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6단계/ 파견 전도(out-reach)

교회가 장소를 결정하여 낙후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 또는 지역 선교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을 찾아가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여 전도하는 것을 말한다.

7단계/ 선교

교인들이 선교를 후원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평신도로서 외국 선교에 직접 참여한다.⁵⁹⁾

이후 온누리 교회는 교회의 양육체계를 5단계로 개정하였는데,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은 온누리교회의 양육 System을 도식화 한 것으로 멤버십, 리더십, 심화양육, 사역자, 선교사 훈련의 단계를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표현한 것이다.

<표 3> 일대일만남을 중심으로 한 온누리 교회의 양육 System

단계	목표	필수과정	선택강좌	공개강좌
1	멤버십	일대일동반자 VISION수련회 성령수련회	성경대학 내적 치유 예배와 찬양학교 예수제자학교 여성사역자학교 장로리더십스쿨 권사스쿨	샤이닝글로리 신혼부부학교 아버지학교 New Life 모세대학 가정훈련학교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평신도선교강좌 상담훈련세미나 선교사훈련학교
2	리더십	QT길들이기 은사발견세미나 일대일지도자 순장계속교육		
3	심화양육	생활전도 중보기도학교 TEE		
4	사역자훈련	사역자학교 TEE고급과정 BEE초급과정		
5	선교사훈련	BEE고급과정 선교사학교		

각 양육단계에서의 양육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59) 박진,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출판사, 2002), 105-106.

- 1단계: 멤버십 과정
온누리 교회 목회철학과 교회론을 이해하고 온누리 비전을 확신한다.
- 2단계: 리더십 과정
일대일 양육을 하며, 교회 사역의 일선에서 온 누리의 비전을 세우는데 협력한다.
- 3단계: 심화양육 과정
개인의 영성을 개발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함양한다.
- 4단계: 사역자훈련 과정
교회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평신도 사역자가 되도록 돕는다.
- 5단계: 선교사 훈련 과정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돕는다.⁶⁰⁾

3.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멘토링은 “경험이나 스킬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나 스킬이 더 작은 사람과 의도적으로 짝지어 합의된 목표에 따라 특정역량을 키우고 개발하는 것”이다.⁶¹⁾ 이러한 멘토링은 일대일 양육의 좀 더 진전된 모습이다. 모양은 일대일이지만, 멘티(양육자를 말함)의 요구와 멘토와의 합의에 따른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후원, 코칭, 보호, 도전적 과제 부여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그 목표를 이루는 양육 System의 하나이다. 이러한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교회인 예전교회⁶²⁾의 박건 목사는 27년 동안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효과적인 멘토링 시스템 개발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인 육성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요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이행하는 최선의 길이 멘토링에 근거한 양육 System임을 확신하면서 이 System을 한국에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⁶³⁾

예전교회는 교회의 5대 기능을 담당하는 5대 개발원인 예배 개발원, 교제개발원, 성장개발원, 사역개발원, 증거 개발원과 교회학교부서를 담당하는 교육개발원으로 교회의 각 부서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각 사역원에 입문하기 위하여 입문강좌를 두었다. 즉, 예배 개발원에 입문하려면 새 가족 공부를 수료해야 하며, 교제개발원에 입문하려

60) 온누리장로사관학교, 양육 (서울: 온누리교회, 2004), 2.

61) M. 머레이, 멘토링: 오래된 지혜의 현대적 적용, 이용철 역 (서울: 김영사, 2005), 23.

62) 예전교회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다.

63)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9.

면 101(등록교인반)을 수료해야 하며, 양육을 받기 위한 성장개발원에 입문하려면 201(성장반)을 수료해야 하며, 교회의 다양한 사역팀에서 봉사하려면 301(사역반)을 수료해야 사역개발원에 소속이 되며,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참여하려면 401(전도반), 411(선교반)을 수료하여야 증거개발원에 입문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성장 개발원에서 201(성장반)에 들어 온 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양육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등록, 성장, 사역, 전도와 선교의 순으로 양육 System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4>과 같다.⁶⁴⁾

<표 4> 멘토링을 중심으로 한 예전교회 양육체계 도표

부서	예배 개발원	교재 개발원	성장 개발원	사역 개발원	증거 개발원	교육 개발원
입문 강좌	새가족 공부	101 (등록 교인반)	201 (성장반) 양육 System ↓ 새 가족반(6주) 멘토링반(12주) 제자양육반(6월) 제자훈련반(1년) 사역훈련반(1년) 지도자반(6월)	301 (사역반)	401 (전도반) 411 (선교반)	교회학교

<표 4>는 사랑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양육 System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점은 201 성장반에서 성도의 신앙양육 프로그램 대부분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다.

4.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

제자훈련, 일대일,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은 대부분 평신도들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하여 훈련시키는 일꾼을 세우기 위한 양육 System

64) 예전교회 홈페이지(<http://www.yejun.or.kr/>)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표로 작성하여 보았다.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육 System은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그 신앙의 성장을 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은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양육 System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양육 System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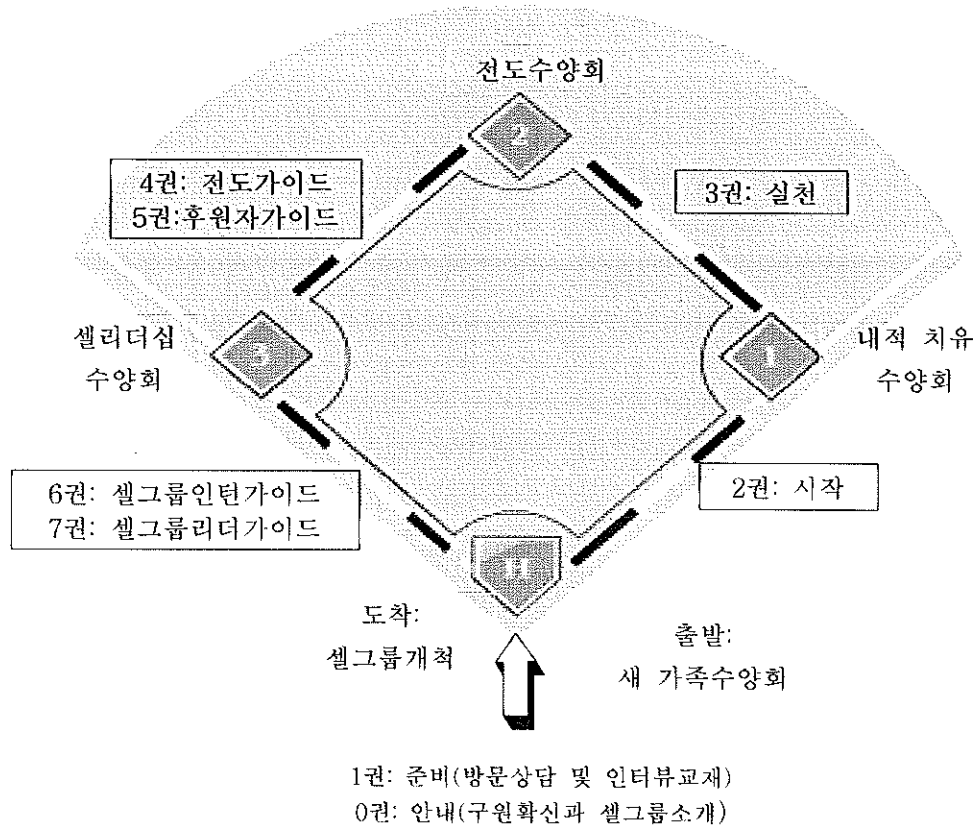
거의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이러한 양육 System의 최고의 결립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피조된 존재들이며,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의 특징은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양회'프로그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인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수양회 후에는 반드시 셀그룹 커리큘럼 교재를 주중에 셀 멤버 자신이 5일 동안 공부하여 주 1회 후원자와 함께 일대일로 만나 공부한 것을 점검받고 간단하게 느낀 점을 나누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는 4번의 수양회와 셀그룹 커리큘럼 새로운 삶 시리즈 0권부터 7권까지의 교재를 공부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 System은 랄프 네이버가 창립한 국제 터치 셀사역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 일종의 야구장 도면과도 같은 '터치 셀그룹 훈련 경기장'이라 불린다. 이러한 양육 System은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 미국의 베다니교회, 싱가포르의 FCBC, 영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등 전 세계의 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난 25년 동안 검증된 결과와 그 커리큘럼을 국제 터치 셀사역 한국본부인 터치 코리아(Touch Korea)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 System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도표⁶⁵⁾는 다음과 같다.

65) Ralph W. Neighbour Jr, *셀교회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15.

<그림 2> 터치 셀그룹 커리큘럼 야구장(Touch Equipping Track) 도표



<그림 2>를 통하여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셀 그룹 커리큘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나온 새로운 새 신자에게 셀 그룹 커리큘럼 '0권 준비'를 선물한다. 그 후에 셀그룹 커리큘럼 '1권인 안내'를 선물하고, 후원자와 함께 일주일 내로 새 신자를 방문한다. 1권은 새신자의 신앙상태를 점검하고 후원자와 함께 그것에 대해 상담하며 인터뷰하는 내용이다. 그 후 새 신자는 새 가족수양회에 들어가 셀그룹 멤버가 되는 준비 훈련을 받는다. 그 후 새로운 삶 시리즈 '2권 시작'(5주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며 1루 베이스인 내적치유수양회로 가게 된다. 내적치유 수양회를 마치면 새로운 삶 시리즈 '3권 실천'(5주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동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도록 돕고, 다음 단계인 2루 베이스인 전도수양회에 참석

하게 된다. 전도수양회에서는 자신이 다른 후원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과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도훈련을 받는다. 전도수양회가 끝나면 셀그룹 커리큘럼 '4권 전도가이드'와 '5권 후원자 가이드'를 후속 조치로 공부하며 3루 베이스인 '셀그룹 리더십수양회'에 참석하게 된다. 이 수양회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것들과 목자가 되어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받는다. 셀그룹 리더십수양회를 마치면 셀그룹 인턴과 리더로서 더욱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제인 '6권 셀그룹 인턴 가이드'와 '셀그룹 리더 가이드'를 공부하며, 홈에 도착하여 자신이 그동안 전도한 새로운 멤버들을 데리고 증식(소그룹이 나누어짐을 의미함)해 정식으로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⁶⁶⁾

제 4 절 요약

본 장에서 연구자는 성인 발달이론에 근거한 성인양육 System에 대한 이론적 기준과 제시된 양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오늘날 교회의 성인양육 System을 이끌어가고 있는 큰 흐름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흐름의 양육 System은 저마다의 장점을 갖고 있으며, 다년간의 사역을 통하여 검증된 훌륭한 양육 System이라 판단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양육 System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 단계마다 연결점을 가진 성인 양육 System을 계획해 보고자 한다.

개 교회에서 양육 System을 세우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계적으로 개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 교회의 상황과 여건, 등, 환경이 양육 System을 진행하고 있는 모델 교회의 상황과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둘째, 개 교회에 양육 System을 세우려고 할 때, 목회 철학과 비전 Statement, 그리고 사명을 근거한 분명한 양육 System의 목적을 세워야 한다. 먼저 기술한 대로 구체적인 목적이 없는 양육 System은 사상누각과도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양육 System을 한 눈에 알 수 있고, 모든 멤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양육 System을 세우는데 있어서 신앙 발달

66) Neighbour, *셀교회지침서*, 439-465.

이론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입체적 차원, 곧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영성적 차원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으로 양육 System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 교회 양육 System은 앞서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본받아 세워지고, 존재하는 교회라는 전제를 근거로 온 성도들이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며,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있어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소그룹 사역은 필수적이며,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여섯째, 개 교회에서 이러한 양육 System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벌어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그 System을 분석,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개 교회 양육 System을 세우는데 있어서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은 필수 조건이다. 멀리 바라보아야 하며,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장에서 연구자가 양육 System을 논의한 것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양육 System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내 체계적인 양육System을 갖추고 양육하고 있는 네 교회의 양육 System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자가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양육 System의 기초를 세우는데 도움을 얻고, 이를 통해 개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양육 System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양육 System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해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한국 교회 양육 System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동체적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 본 후 공동체적 교회의 양육 System을 제안해 볼 것이다.

제 4 장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양육 System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위계구조(지배)이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위계구조이다. 이러한 위계구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타나는 구조로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로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든다.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신음하는 인간들이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하며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이러한 하나 됨을 깨고 다시 하나님과 분리하기 위하여 지금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지배구조 속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공동체적 교회이다.⁶⁷⁾

교회론에 따르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네 가지 표지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인데 이를 종합하여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고,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된다. 최근에 이러한 참된 교회를 설명하는 두 개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유기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the healthy church)와 교회의 사명을 중심으로 한 '선교적 교회'(the missional church)의 개념이다.⁶⁸⁾ 본 연구자가 제시한 '공동체 교회론'은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건강함과 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종합한 것으로 이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2장에서 본 연구자는 공동체 교회론에 대하여 언급하며, 공동체로서 존재하

67)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55-58.

68) 최동규, *교회 성장,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두란노 목회와 신학 2012년 1월호, 47.

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된 한 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러한 교회는 Universal Church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을 세워 온전케 하여 사명자로 헌신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교육학적 발달(성장)이론을 근거로 한 커리큘럼을 갖춘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갖추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한국 교회의 양육 System의 한계와 이를 야기한 성도와 목회자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공동체적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를 한 뒤 공동체적 교회의 구체적인 양육 System을 제안할 것이다.

제 1 절 한국 교회 양육 System의 한계 및 문제점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의 양육 System이라는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

1. 일반 성도들의 문제

한국 교회의 양육 System의 한계를 언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성도들의 문제점들이다. 그 문제점은 첫째, 목회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감이다. 일반 성도들의 대부분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목회자를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목회자 의존적이 된다. 스스로 그 무엇을 해 나가기보다는 목회자의 말과 기도, 그리고 그의 열심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고 성장하여 사역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성도들의 현실은 교회 내 사역의 주체로서 서기 보다는 교회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기만 원하는 유아기적 성향을 나타낸다.⁶⁹⁾

둘째, 일반 성도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들이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성향은 서구 사회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점점 서구화 되어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도 점차 그 모습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교회 내에서

69)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13.

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신의 만족과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바꾸어 버리는 성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공동체 교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을 이타적 섬김과 나눔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반 성도들의 잦은 이동(이사)도 한 문제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 성도 개개인이 교회의 양육 System을 통하여 그 신앙이 성장하여 사역자로 서기 위한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환경과 상황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만 하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 갈등이나 관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나 관계의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개 교회 양육 System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 교회의 양육 System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소그룹 사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각종 윤리 도덕적 문제에 근거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의 문제이다. 반 기독교 세력들과 일부 언론이 선정적으로 보도했던 일부 목회자들의 재정적, 윤리 도덕적 문제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불신의 상황들은 전도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개 교회의 소그룹이나 양육 System을 통한 신앙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섯째,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의 사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앙이 기복주의화되고, 이를 통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강화를 통해 점점 폐쇄화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인데 앞서 언급한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인 Universal Church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개 교회 양육 System이 제대로 정착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교회 내부 현상 유지에만 그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문제다. 이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양육 체계, 이를 위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성도들의 수, 들어오는 헌금 등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잘 유지할 것인가에만 그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성도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목회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회자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2. 목회자의 문제

한국교회 내 양육 System이 온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일반 성도들의 문제 뿐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도 크다. 첫째,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분리해 버리는 의식이다. 이는 구약의 제사장과 백성들의 관계처럼 일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선지자요, 예언자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분리 의식은 한국 교회내의 체계적인 양육 System이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에베소서 4장 11-12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에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다는 목사 위주의 해석을 통해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성도는 배우고 교회의 일에 봉사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말씀은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온전케 하는)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정당하다.⁷⁰⁾ 다시 말하면 성도를 세우는 일은 단순히 일반 성도는 목회자가 사역할 때 옆에서 돕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한국 교회 내 양육 System은 온전히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둘째, 목회자의 양육 System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 시행되는 양육 프로그램들, 그리고 개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필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양육 프로그램들의 문제이다. 이러한 양육 프로그램

70)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15.

램에 일반 성도들은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해도 쉽게 지치고 이탈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어느 교회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니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한다더라’는 단순한 판단 속에 개 교회의 상황을 무시하고 철저한 준비도 없이 ‘핑 잡는 것이 메’라는 생각으로 시행되는 양육 프로그램들은 온전히 자리 잡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 또한 목회자의 권위적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 현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양육 말고도 설교, 심방, 행정, 관리 등 교회의 거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은 이러한 과중한 짐으로 인해 때로 탈진할 뿐만 아니라 개 교회의 양육 System의 구축과 유지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못하게 된다. 수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를 목회의 최우선 가치와 순위에 두지 못한다면 그러한 양육 프로그램들은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인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논의되는 ‘조급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하나의 양육 System이 개 교회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고, 그 문제들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가운데 긴 시간을 두고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장기적 관점이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은 단기간 동안 시행하고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온전히 정착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섯째, 목회자의 무관심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와 해체되기 시작한 공동체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그리워한다. 교회는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다.⁷¹⁾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은 이러한 요구에 충분한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목회자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성도와 목회자의 문제점들은 한국 교회 내 양육 System을 구축하고, 그 System을 통해서 성도 신앙의 성장과 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인가 논하여 보자.

71) 최동규, *교회 성장, 아름답게 할 수 있다*, 49.

3.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려할 점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들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데에는 일반 성도와 목회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관점은 교회 내 양육 프로그램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분위기, 곧 가족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의 분위기와 양육 System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그 우선순위, 구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생명 공동체이기에 생명력과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⁷²⁾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이 제시한 교회의 비전들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고, 일반 성도들의 요구에도 교회의 리더십들은 항상 민감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공감과 온전한 섬김을 통해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일반 성도 개개인 양육에 있어서 개개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교회 전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성도를 세운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건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것⁷³⁾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가 윤리적인 문제들(물질, 성, 교단 정치, 세습 등)로 인하여 일반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물질적 가치와 세속화 경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회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인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돌아보는 가운데 대 사회적으로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 스스로의 소명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자기 확인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고취하는 일이 지속되어야 한다. 목회자 스스로 이렇게 할 때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의 신뢰 속에서 그 다양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분리하려는 의식들을 극복하는 일이다. 이는 만인 제사장(벧전 2:5)으로서 존재하는 일반 성도들의 역할을 목회자가 잘 이해하고 그

72) 최동규, *교회 성장, 아름답게 할 수 있다*, 51.

73)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17.

들을 온전한 사역자, 곧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과 사명자로서 헌신하는 사역자들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양, 자녀, 제자 등으로 생각하며 목회자 자신의 인도와 리더십에 복종하고 따라오기를 강조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을 자신과 함께 하고, 견고, 자라나가는 동역자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목회자들은 부름 받은 종으로, 섬김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약적 제사장의 권위의식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태인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스스로의 소명과 사역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을 언급할 때 일반 성도들을 만인제사장으로서 함께 하는 동역자라는 관점은 그 System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제 2 절 공동체적 교회 세우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따라 피조된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는(엡 4:13)데 이르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존재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공동체의 원형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요, 또한 그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는 다섯 가지 기능, 곧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증거라는 기능을 소그룹이라는 틀을 통해 수행함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체계적인 양육을 통해 헌신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마침내 종말에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여 이루실 Universal Church를 세우는 궁극의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74) 이숙종,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423.

1. 공동체적 교회의 비전 세우기

공동체적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먼저 유의할 점은 교회를 보는 관점이다. 교회를 유기체의 관점으로 보아야 함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보는 몇 가지 기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전체성이다. 이러한 전체성이 말하는 바는 보이는 부분들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유기체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 공동 상승효과이다. 공동 상승효과는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일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한다.⁷⁵⁾ 셋째, 유질동상의 원리이다. 이는 목회자와 성도가 비전, 가치관, 스타일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선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유질동상의 원리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 요소들은 복음에 근거하여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의 결과로 얻게 되는 공동체적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질적,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하나님 나라 중심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한 훈련이다.⁷⁶⁾

이렇게 유기체로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Vision을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Vision은 그 교회의 Vision Statement로 설명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들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가치선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나의 Vision, 하나의 가치관을 가진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로가 각자 다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삶과 사역의 기준으로 삼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 몸 공동체로서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지체의식이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려는 의식을 가진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자리에까지 낮아져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말구유에 성육신(incarnation)하신 예수를 본받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세워 놓은 계

75) 이는 1+1=2가 아니라 2이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의미한다.

76)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40-42.

획을 일단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위해서 목회자 스스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⁷⁷⁾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목회자는 일방적인 관점을 가지고, 제시하고 따라 올 것을 강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성도들은 따라가기 보다는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목회자는 리더십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불신의식을 갖게 되어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스스로 교회와 성도들의 지체 가운데 하나라는 의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체 의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쫓아 함께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 공동체적 교회의 필수적 요소들

이렇게 이루어진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째, 소그룹이다. 이것은 교회 내 모든 사역들과, 양육 System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함께 하는 사역, 함께 자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따라 존재하고 있기에 각기 다르지만 상호 의존하며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 의존의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의 관계나 독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⁷⁸⁾ 이를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된 교회는 하나 됨으로 일치성을 보여야 하고, 구성원이 된 각 지체는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바로 소그룹인 것이다.

둘째, 교육 이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이다. 수많은 기독교 교육 이론들과 신앙 발달 이론들은 교회 내 양육 System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는 과학적인 것이며, 나름대로의 실천의 근거를 제시하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개 교회에서 양육 System을 세워나가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 교육 이론들을 참고하고 검토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앞서 4 장에서 소개한 신앙 발달 이론들과 성인 교육에 있어서 입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오스머

77)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43.

78) Ibid., 69-70.

의 이론에 따라 교육 환경과 조건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앙 발달단계 이론을 근거로 자라가는 신앙의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 개인 신앙 성장이 단순한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제, 말씀에 대한 이해 및 공부, 기타 영적 훈련,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사랑과 화평의 경험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셋째,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세상 종말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존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형을 쫓아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점은 교회 전체가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⁷⁹⁾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해 주듯이 크리스천의 관계는 나, 너, 우리의 관계⁸⁰⁾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교제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과 섬김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는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사랑과 섬김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분명한 목적의식, 곧 비전의 확립이다. 목회자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면, 나의 뜻이 아닌 성경말씀을 쫓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공동체로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있으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필요하다. 서로가 다 다르지만 사랑과 섬김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하나가 된 비전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배의 개혁이다. 예배는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

79)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208-210.

80) 성삼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을 찾는 것과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한 형제요 자매인 너와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로 표현되는 우리의 관계를 이루게 한다는 말이다.

는 하나의 끈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끈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엡 2:14)⁸¹⁾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은 참된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 공동체적 교회의 예배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고후 5:18)을 맡은 자로 갈라진 사람들과 사회를 화해시킬 수 있게 된다.

3. 공동체적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먼저 이러한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 사명 의식을 갖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⁸²⁾ 이는 신앙과 삶의 성장,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성도 개개인의 자각, 현재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공동체적 교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학습이 이어져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무엇인지, 교회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강단에서, 소그룹에서, 개인적인 만남과 교회의 각종 공식적인 회의 등에서 이러한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한 이를 목표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교회가 되었을 때의 모습과 열매들에 대한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학습과 설득의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교회로 변화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양육 System과 이에 따른 커리큘럼과 각종 환경들을 미리 계획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학습 과정 중 교회 내 다른 소그룹들을 탄생시키는 모체와도 같은 비

81) 이유정, “교회의 공동체성, 예배에서 시작한다,”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 50-52.

82) Paul Stevens and Pill Co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100.

전 소그룹(Mother Small Group)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전 소그룹은 교회 전체 소그룹의 원형이 되는 것이며, 교회 전체를 소그룹을 기반으로 한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⁸³⁾ 교회 전체를 어느 한 순간에 전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서서히 소그룹의 유익과 기쁨을 맛보는 가운데 나도 그러한 기회를 갖고 싶게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리더들을 훈련하고, 세워 계속해서 증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여 훈련시키고, 이를 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교회 전체가 소그룹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적 교회로 변화된다.

이러한 증식과 확장의 과정을 통해 교회가 공동체적 교회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교회의 운영과 사역, 그리고 비전⁸⁴⁾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 과정을 통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교회가 공동체적 교회로 변화하는 가운데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설득과 합의 과정 중에서 오는 반발 등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는 영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다. 교회 전체가 이렇게 공동체적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리더인 목회자 자신이 성급하지 않고 신중히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심지어 교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모든 변화의 과정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구축 방법

공동체적 교회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여러 과정들을 겪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세워진다. 이러한 과정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미리 계획된 System과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목적의식이 중요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원칙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양육 System의 목적과 원칙, 방법론 등과, 이에 따른 공동체적 교회

83) Roan Nicolas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규역 (서울: IVP, 1986), 90-91.

84) 이는 교회 Vision Statement, 핵심 가치, 교회의 조직과 운영 전략 등에 대한 공동체적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를 위한 양육 System을 구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목적 세우기

양육 System의 목적은 이 System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확고한 목적의식은 이 System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목적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진술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따라 지음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그 죄의 열매인 고난과 죽음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피의 제물로 희생하셨고, 그 피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세우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어 구원을 받은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태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 모든 만물을 회개하는데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는 일,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들에 대한 사명을 가진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으로 훈련 받고, 성장하여야만 한다.⁸⁵⁾

둘째, 성도의 신앙은 자라가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성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늘 그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물질주의적 가치관과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적 세계관을 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 성품과 기질들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학적인 관점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인 사랑과 섬김을 통한 소통은 공동체 양육의

85)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24-26.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다. 교회와 가정 모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형성된 하나됨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곧 상호 복종을 통한 중의 도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 안의 모든 지체는 서로의 권위 질서 하에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종과 중의 도로 섬김으로서 서로에 대해 사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⁸⁶⁾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의 목적을 진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따라 지음 받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원칙

위에서 진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의 확보이다.⁸⁷⁾ 이 섬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말하는 것이다. 각각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 전적으로 의존하시고 영향을 주고받으시는 가운데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삼위 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도를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기초로 모든 양육 System을 운영해야만 한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올 수도 있고, 기타 문제로 인해 공동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공동체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이다.

둘째, 확장, 곧 재생산이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면 공동체는 확장되어야 마땅하다.⁸⁸⁾ 그렇기에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은 확장을 전제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꿀을 머금은 꽃에 벌들이 모여들 듯이 사랑의 섬김으

86)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29-38.

87) Ibid., 43.

88) Ibid., 26-28.

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객체로 존재하는 다른 이들을 끌어 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장을 전제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System은 서서히 정체되고 말 것이다.

셋째, 삶의 모범이다. 양육 System을 통한 가르침과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통해 가능하다. 특별히 양육 System을 섬기는 리더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예는 정직, 성실, 겸손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상호 작용을 통한 성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하시기에 이러한 상호작용의 관계성은 모든 양육 System의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원칙이 된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성도들은 서로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 때로는 타락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관계를 통하여 아픔과 상처, 갈등 등을 겪을 수 있지만, 모든 죄인들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러한 아픔들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배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가운데 받게 되는 은혜의 선물은 은사이다. 이는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별견되는 것일 수도 있다. 모든 양육 System 안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배치하는 일들은 양육 System의 또 하나의 원칙이 될 수 있다.

3.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방법론

위에서 언급한 목적과 원칙들을 기준으로 어떻게 양육 System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에 따른 몇 가지 방법론들을 논하고자 한다.

가. 소그룹(Small Group)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의 핵심은 소그룹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그룹은 성

경의 주된 가르침과 명령을 충실히 이해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초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⁸⁹⁾ 주일 대예배를 중심으로 각종 예배와 기도회 등을 강조하는 교회의 분위기에서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과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로 소그룹은 교회가 커지지만, 교회가 본래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또 교회에 심각한 위기와 핍박이 있을 때 활발히 일어났다.⁹⁰⁾ 역사적으로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외형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듯 보이던 교회들은 형식적인 경건과 실천적 능력이 상실된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 갔다. 그러나 기독교를 멸하려는 폭군 아래에서나 반 기독교적 이데올로기 앞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 은밀히 모일 수 있는 소그룹 형태의 모임은 시작되었고, 이러한 때의 소그룹은 더욱 순결하고 훌륭한 믿음이 키워지는 자리였고, 신앙적 생명력이 더욱 강인해 지는 터가 되었다.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점은 소그룹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셋째로 소그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은 소그룹을 통해 친밀해져 서로를 알고, 삶을 공유하며, 도전과 도움을 주고, 비밀을 이야기하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서로 점검해 주는 가운데 함께 성장한다는 것이다.⁹¹⁾ 사람들의 인격과 신앙은 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관계로부터 나오는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그룹은 성품의 변화와 영적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그 소그룹들의 유기적인 짜임새를 잘 갖추고, 바람직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체가 된 각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잘 다져질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 전체의 내실 있는 성숙과 성장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은 중요한 것이다.

89) Roan Nicholas, 외,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246.

90) Ibid., 247.

91)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67.

나. 팀 사역(Team Ministry)

공동체 양육 System에서 소그룹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사역은 팀 사역이다. 팀이란 흔히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⁹²⁾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팀 사역에는 다섯 가지 P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목적(Purpose), 둘째, 장소(Place), 셋째, 능력(Power), 넷째, 계획(Plan), 다섯째, 사람(People)이다.⁹³⁾ 팀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다섯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다.

소그룹과 팀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은사의 활용의 부분에서의 차이일 것이다. 소그룹은 공동체 조직의 원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특별히 신앙 입문의 단계나, 개 교회 주중 모임의 기본적인 형태로 소그룹은 아주 유용하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장에 따라 개인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사를 따라 같은 목적과 같은 은사를 가진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양육 System에서의 핵심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팀 사역은 소그룹 사역과 함께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희 목사의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팀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이다. 다양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성은 더 아름다운 것이다. 다양성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통일성의 주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고, 또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다양성이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체가 개성이 아니라 분열이며, 통일성이 다양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조화가 아니라 독재가 된다.”⁹⁴⁾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와 같은 의미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의 또 다른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그룹과 팀 사역은 공동체 양육 System의 중요한 방법론이 될 것이다.

다.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

교회 내 전체 양육 System이 소그룹과 팀 사역을 기반으로 운용된다면, 서로 다

92) 이성희, *디지털 목회와 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4.

93) Ibid., 18.

94) Ibid., 49-50.

른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과 관심의 분위기도 또한 중요하다. 전체의 그룹들과 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존재 양태를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분위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에 따르는 개념들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관심이다. 공동체 교회는 관심이 있다. 우선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요, 그 다음은 상처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요,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함께 섬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이러한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다. 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둘째, 용납이다. 서로 다름의 부분에서 그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용납이다. 공동체라고 해서 각자 다름과 갈등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충되는 신념, 개인에 따라 다른 기호, 각자 성격에 따라 다른 행동들을 너그러이 수용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용납인데, 이는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빌 4:5) 그러므로 공동체 양육 System 안에서의 용납의 분위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조되는 말은 없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 지체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⁹⁵⁾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의 외모, 성격, 성장배경, 기호, 성별, 나이, 환경, 받은 은사, 학력 등 모든 부분이 다 다른 존재들이다. 그렇기에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체 교회 양육 System은 온전히 정착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과, 서로 다르지

95) Robert J.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서울:여수문, 1999).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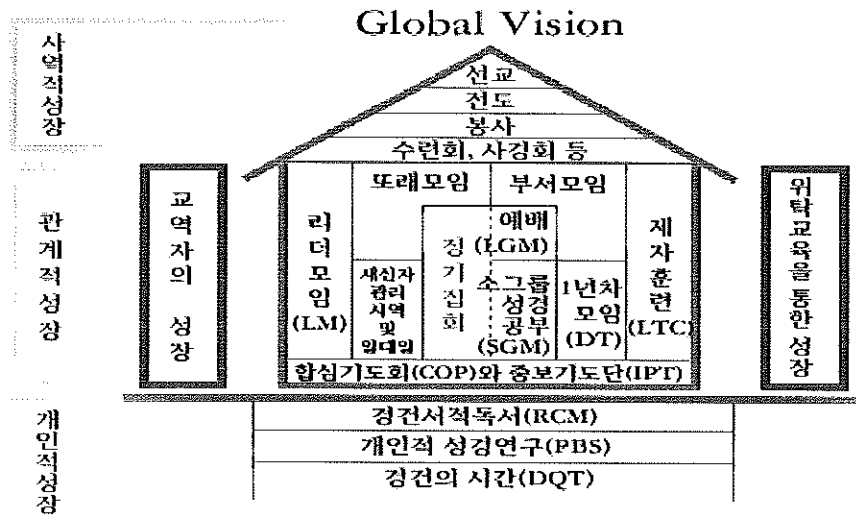
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분위기는 공동체 교회의 양육 System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의 실례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은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지체로서의 공동체 교회에 근거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안에서의 사람, 성장, 성숙을 지향한다. 그래서 공동체적 교회론을 기반으로 하는 양육 System을 표현할 수 있는 House Diagram⁹⁶⁾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교회 내 청년 목회자들을 위한 2080 청년목회자 연합은 개 교회 청년 양육 System을 House Diagram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House Diagram은 지역 교회의 청년 교회를 세우기 위한 Master Plan으로 내실 있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House Diagram은 공동체를 통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도록 고려된 것이며, 청년 대학부가 교회의 한 유기적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사회와 세계를 위한 복음적인 대안적 공동체로 자라가게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96) 청년목회자연합, Online: http://www.young2080.com/default2.asp?menu_id=3&content=ypa/main 참조. 청년 목회자 연합의 진술에 의하면 House Diagram의 기초는 미국 IVF의 “Student Leadership Manual” 등에 있다. 그리고 이 기초가 한국 IVF의 기초를 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현재 House Diagram은 청년목회자연합의 고직한 선교사가 IVF 사역을 하면서 경험, 교회 청년대학부에서의 경험 등이 더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미국 IVF의 서적들을 참고하라. Staff Manual, Small Group Leadership Handbook, Literature Ministry Handbook, Bible Life Manual, Chapter Camp Manual

<그림 3> House Diagram 구조⁹⁷⁾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House Diagram은 집 구조로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의미, 그리고 그 양육 System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House Diagram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특징이다. 지붕과 기둥, 그리고 기초로 표현되는 집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라는 공동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함께, 더불어, 같이 등의 용어들은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모습이다.

둘째, 아래 기초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양육 System의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를 집의 문으로 들어가(결신, 등록 등) 각 방을 다니고(양육 System을 통한 자라남),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먹고, 교제하고, 살아가는(대그룹 모임, 공적 예배 및 집회 등) 가운데 지붕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교회로서의 신앙인과 교회 공동체의 기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조이다.

셋째,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초와 몸, 그리고 지붕으로 이루어진 3단계 구조는 기초(개인 매일 말씀 묵상, 영적 독서, 개인 성경공부)를 통한 개인적 성장 부분, 한 몸 안의 각 지체들과의 관계(소그룹, 제자훈련 각종 모임 등)를 통한 성장 부분, 지붕으로 표현되는 함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나

97) 청년목회자연합, Online: http://www.young2080.com/IMAGES/ypa_house.gif

는 사역적 성장 부분이 교육학적 발달이론과 리차드 R. 오스머의 신앙의 입체적 이해, 곧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신비적 차원에 대한 신앙 이해와도 잘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공동체적 교회의 양육 System의 기본 구조로 House Diagram을 택하고자 한다.

제 4 절 요약

지금까지 연구자는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을 정리해 보았다.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의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따라 지음 받은 몸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을 통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의 원칙들을 소개하였다. 그것은 첫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이다. 둘째는 확장, 곧 재생산이다. 살아 있는 몸으로서의 유기체적 교회론의 당위론적 결과물은 열매이기 때문이다. 수적, 질적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의 당위적인 모습이다. 셋째, 삶의 모범으로 정직, 성실, 겸손, 순종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별히 리더의 삶의 모범을 통한 자세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넷째, 상호 작용을 통한 성장이다. 신앙의 성장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상호 관계성을 통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원칙이다. 다섯째,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배치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열매를 맺기 위한 당위적인 수순이다.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따라 전인적인 소그룹과 팀 사역, 그리고 예배와 기타 집회, 그리고 영적 프로그램들을 통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함으로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은 완성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교회의 양육 System은 앞서 제시한 House Diagram을 그 기반으로 하는 구조로 설명할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와 상황, 그리고 기

존의 양육 System과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미래적 비전을 발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 5 장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의 성인 양육 System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Ft. Lauderdale에 위치하고 있다.⁹⁸⁾ 이 교회는 198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30여 년간 그 지역 속에서 하나님을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열방을 가슴에 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교회이다. 그 지역 약 5천여 명의 한인들 가운데 장년 500여 명과 교회학교 200여 명을 섬기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현 담임목사인 장찬영 목사의 지역 한인의 십일조인 500명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그 지역 속에서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성장하며, 사역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탄생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양육은 각 교회가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은 저마다 독특하기에 그 독특한 환경에 맞는 양육이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아무리 훌륭한 양육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환경이 서로 연결점을 찾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후 양육 System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한다.

98) 교회의 정식 명칭은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Florida)이며 주소는 4905 W. Prospect Rd. Ft. Lauderdale, FL 33309이다.

제 1 절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역사와 비전

1. 교회의 역사⁹⁹⁾

남부 한인연합감리교회는 1981년 김종우 성도 가정에서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회의 설립을 결의하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조승동 장로의 인도로 코랄 스프링스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고, 1981년 9월 20일 미 연합감리교회 플로리다 연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스위트 감리사의 집례로 첫 번째 세례예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교회는 차차 성장하여 4개의 속회와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교회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성가대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3월 25일에는 플로리다 주정부에 종교법인체로 등록이 되었고, 개척 초기부터 예배를 인도해 오던 조동승 장로가 1983년 12월 25일 사임하고, 1984년 플로리다 연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김정백 목사가 제 1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후 1984년 9월 4일 미 연방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가입되어 비로소 정식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초기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리고 미 연합감리교단의 후원과 격려 속에서 그 지역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교회 건축 및 이전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1987년 9월 13일 제 2대 담임목사로 남병희 목사가 취임하는 가운데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3년 여 간의 준비를 통해 1989년 지금 현재의 예배당이 있는 올더스케잇 교회로 이전하여 플로리다 연회의 정식 교회¹⁰⁰⁾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후 교회는 계속 차분히 성장하였고 1992년 나은진 전도사가 부임하여 1993년 첫 번째 장로인 김종우 장로를 세웠고, 팜 비치 지역에 지교회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었다. 1995년에는 이우현 목사가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고, 일본, 멕시코 등으로 구제 헌금을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 사역이 시작 되었다. 1997년에는 양재성 목사가 제 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교회의 정식 양육 System의 일환으로 제자 훈

99)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30주년 기념 화보집(플로리다: 문서편집부, 2011) 참조

100) 미 연합감리교회는 교회가 설립되면 감리사의 주재로 구역회를 통해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이후 성장의 과정을 거쳐 자립할 수 있기까지 선교교회로 칭한다. 이후 몇 년(교단 헌법인장정에는 기본이 3년 이후로 되어 있다.)의 성장 과정을 거쳐 교회가 자립하여 목회자의 샬러리와 교단 선교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정식 교회로 연회에 가입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련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멕시코 선교 지역에 2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 단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1981년 이후 교회가 설립되어 행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차근차근 성장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었지만, 몇 번의 위기의 과정을 통해 교회의 성장은 정체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몇몇 성도들의 갈등, 목회자와의 문제 등은 전형적인 이민 교회의 현상들이었고, 교회 내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교회에 2003년 장찬영 목사가 제 5 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장찬영 목사는 부임하자마자 그해 12월 31일 목회 계획 설명회를 가지고 교회 리더십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집중하였다. 예배와 기도회 등 공적 모임에서의 은혜의 체험을 강조하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드러지는 예배와 선포되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교인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와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갈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새 가족 사역과 비전 클래스, 영성 훈련, QT, 기도학교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사역 팀 중심 구조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또한 교회 전체의 소그룹, 끈속회 조직을 셀과 목장 체제로 변환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을 따른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기쁨의 헌신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후 교회의 선교 사역을 멕시코 지역만이 아닌 중남미 전체로 확대하여, 2005년에는 니카라과, 볼리비아, 자메이카, 하이티 등으로 확장되었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Vision Trip, 지역 목회자 학교 사역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한 사역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은 2007년 탈북자 및 중국 신학교,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까지 확장되었고, 온 열방을 가슴에 품는 사역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시작한 엠마오 캠프는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엠마오 캠프는 트레스 디아스의 변

형된 모형으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자체가 호스트가 되어 주관되는 운영되는 2박 3일의 은혜의 캠프이다. 엠마오 캠프는 복음과 성령의 은혜의 도가니를 경험하는 귀한 사역으로 이 사역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외 유명 강사와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은혜의 집회를 연 2회 이상 열여 지속적인 은혜를 통한 헌신과 사역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회들은 중보기도 세미나, 사경회, QT 세미나, 각종 간증 집회 등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역들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은혜의 사역들을 통한 교회의 변화는 아름다운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2008년에 플로리다 연회로부터 성장하는 교회로 선정되고 시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적으로 자라며, 성숙해지는 교회로 변화된 것이다.

2. 교회의 비전

이렇게 새로운 교회로 변화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2011년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진집을 발간하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슬로건을 통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선교적 지경을 넓히는 교회, 끊임없이 갱신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제자화 하는 교회”, 2차적으로 “지역 사회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교회”, 3차적으로 “1세와 2세, 다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를 지향하는 “비전이 이끄는 주님의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었다.

장찬영 목사는 교회 안내 및 소개 책자인 “비전이 이끄는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남부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집중하는 세 가지 원리는 첫째, ‘잘 배우는 목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잘 배우기 위한 배움과 훈련의 양을 요구합니다. 삶의 변화, 성령의 충만함은 배움을 향한 비워진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 품는 목회’를 지향합니다. 이민 교회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고국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품었던 시린 마음(Compassionate Heart)과 같은 성

도들의 마음을 가정 사역과 목장 사역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 안기를 원합니다. 셋째, '잘 주는 목회'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Open Heart - Global Perspective)을 가지고 잘 주고, 잘 나누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¹⁰¹⁾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서 나가고 있다.

제 2 절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적 상황

본 절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현재의 규모와 사역, 그리고 지역 상황에 대한 분석은 교회의 현재를 돌아보는 것을 통한 미래적 설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먼저 교인들의 분석을 통해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특징 점들을 살펴보고, 교회 내 사역들을 분석하고, 지역 내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역적 상황을 돌아보고자 한다.

1.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성도 분석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는 2012년 현재 총 706명의 성도가 재적 되어 있다. 이중 한어권 성인 회중이 506명, EM(English Ministry) 50명, 교회학교 150 여명으로 구성된다. 한어권 성인 회중의 연령별 분포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성인회중(20대 이상) 분석표

연령대 구분	2-30 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남	36	75	94	21	226(44.7%)
여	45	83	116	36	280(55.3%)
합계	81	158	210	57	506

101) 장찬영, *비전이 이끄는 주님의 공동체(교회 소개 및 안내 소책자)*, (플로리다: 문서편집부, 2008), 4.

<표 5>를 보면 교회의 주축은 40-50대의 장년 성도들이다. 그런데 이 분석을 살펴보면 남녀의 비율이 거의 5대 5으로 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보통 교회 내 여자 성도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일반적인 구조를 생각할 때,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는 남성 킬러(Man Killer)'¹⁰²⁾라고 표현하고 있다.

2012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주일 예배 출석 평균 650여명(교회학교와 EM 150명) 총 11개 교구에 52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마이애미를 중심으로 한 남부 플로리다 지역의 전체 한인 인구가 많이 잡으면 5천명에 이르는데, 이 인구의 약 12퍼센트 정도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기반에는 교회 내 다양한 사역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역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역들은 세밀하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헌신도가 높다. 이는 일반 성도들의 사역에 대한 참여와 활동들이 활발하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교회 내 사역은 큰 틀로 총 6개의 사역으로 나뉜다.

먼저 예배 및 집회 관련 사역들로 교회 내 공적 예배 모임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이다. 그것은 주일 예배 및 각종 집회를 위한 준비, 방송 및 기타 멀티미디어 시스템 운용, 인터넷 홈페이지¹⁰³⁾, 특별집회의 기획 및 주관을 담당하는 예배 사역과 예배 특송 및 절기 관련 음악 프로그램(칸타타)을 주관하고, 찬양대 수련회 및 세미나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찬양대 사역이 포함된다.

둘째로, 교회 내 교우들을 위한 사역들이다. 이 사역들에는 새 가족 및 등록 교우들을 위한 관심과 돌봄, 교회 정착을 위한 새 가족반 운영, 월 1회 실시되는 새 가족 환영회 주관, 특별 관심대상 교우들에 대한 심방 등을 하는 돌봄 사역과 각종 훈련, 양육 프로그램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는 양육 사역, 예배 및 집회를 위한 중보

102) 'Man Killer'라는 표현은 남성 교인들이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출석하면 그 정착률이 80퍼센트대에 이르기엔 이러한 현상을 일컫는 명칭이다. 일반적인 교회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이는 교회 내 남성들의 사역과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03) 교회 공식 홈페이지는 <http://www.kumcsfla.org> 이다.

기도 및 주중 기도모임방 운영, 연 1회 진행되는 플로리다 DTS 사역¹⁰⁴⁾을 주관하는 중보기도사역, 세대별 가족 수양회, 가정 세미나 등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는 가정 사역, 각종 레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친교 활동을 담당하는 레포츠 사역, 공연, 출판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고, 지역 장애우를 위한 자선 콘서트, 연극팀, 핸드벨 팀을 운영하는 문화 사역, 주일 및 각종 모임 시 식사 친교와 주방 관리를 담당하는 목회 후원사역들로 나뉜다.

셋째는 교회 외부 사역들로 국내 외 엠마오 캠프¹⁰⁵⁾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하고 진행하는 엠마오 캠프 사역, 지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활동 및 전도 훈련, 매 주일 실시되는 목요 전도대 운용, 연중 전도 집회를 기획 및 주관하는 전도 사역, 네트워킹 사역관련 업무와 미국 내 선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NET Ministry¹⁰⁶⁾ 컨퍼런스 지원 및 연중 목회자 훈련 과정, 미국 내 미자립 교회 돕기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국내 선교 사역, 목장을 통한 선교와 해외 선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목장과 해외 선교지를 매칭해 주는 매칭펀드 프로그램, 각종 단기선교 프로그램 기획 및 주관, 선교사들의 방문 및 집회를 주관하는 국외 선교 사역, 교회 이외의 외부 단체들과의 연결 및 협력사역과 지역 내 한인회 후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대외 협력 사역들이다.

넷째, 행정 및 관리 사역으로 교회 사무실 업무를 중심으로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사역, 교회 역사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합 정리 보관하며 관련 자료집 발간 등을 담당하는 역사기록 사역, 교회 건물 및 각종 설치물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사역들이다.

다섯째는 교육부 사역으로 교회학교¹⁰⁷⁾ 내의 어린이 교회, Youth/EM 사역, 한어

104) DTS(Disciple Training School)란 예수전도단(YWAM)의 공식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떠나 6개월의 커리큘럼으로 집중 훈련을 하는 DTS와 개 교회에서 직장인과 비즈니스를 하는 이들을 위해 매 주 2일(금-토) 저녁 시간을 이용해 12주의 강의와 1주의 아웃리치를 진행하는 BEDTS가 있는데,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하는 DTS는 BEDTS다.

105) 엠마오 캠프란 '뜨레스 디아스'라는 영성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호스트가 되어 플로리다 지역의 7개 교회가 연합하여 2박 3일간 진행되는 영성 프로그램이다.

106) N.E.T란 Networking Enhanced Team Ministry의 준말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호스트가 되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여 개의 교회와 목회자가 교단을 초월하여 모여 연 2회 컨퍼런스를 진행하여 목회 정보와 친교들을 나누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청년부, 70대 이상의 실버 선교회, 한글학교, 열린 도서관 등을 담당하는 사역들이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육부 사역의 특징은 영아부터 청년까지의 교육 프로그램과 장년과 노년들, 그리고 지역 내 한인 커뮤니티 내의 영어권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들이 영아부터 청년부까지 이루어지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교육부 사역은 장년과 노년들도 그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는 위원회¹⁰⁸⁾ 사역으로 재단 및 장기 발전 위원회, 재정 위원회, 공천 위원회, 목회 협조 위원회, 선교 위원회, 장학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역들이다.

이렇게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역들은 교회 내외의 모든 관심과 훈련된 성도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으로서 세분되어 있고, 활발히 그 사역들을 운영하고 있다. <표 6>을 통해서 보면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내 모든 사역들은 큰 틀로 총 6개의 사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사역들은 교회 내 양육 프로그램 내 은사 발견 프로그램과 기타 달란트를 가진 이들 중 자원한 이들을 리더 및 각 사역 팀원들로 운용되고 있으며 목회 팀은 각 사역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그 사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을 조정하며,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목표들을 일깨우는 가운데 비전에 부합한지,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각종 Feedback 과정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리하여, 사역을 수정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사역들은 다음에 제시된 <표 6>을 참고하라.

107) 교회학교(Church School)는 주일학교(Sunday School)을 지칭하는 감리교 교단의 명칭으로 교회 내 모든 연령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108) 위원회(Committee)는 미 연합감리교회 교회 내 사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조직으로 목회 협력위원회, 재정 위원회, 재단위원회, 공천 위원회, 선교 위원회, 장학 위원회 등 각 역할과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중 재단, 목회 협력, 공천 위원회는 교회 내 필수 조직들이며, 나머지 사역들을 위한 위원회 조직, 곧 선교, 교육, 장학, 봉사 등의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3명의 위원들이 교체 된다.

<표 6>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역 현황

사역	팀 구분 및 내용
예배 및 집회 사역들	예배 사역 : 예배 및 각종 집회의 방송장비, 홈페이지 운용 특별집회 기획 및 주관 찬양대 사역 : 예배 특송 및 음악 프로그램 담당
교회 내 교우들을 위한 사역들	돌봄 사역 : 새가족 및 등록 교우들에 대한 사역 담당 새가족 사역, 환영회(월 1회), 심방 양육 사역 : 각종 훈련 및 양육 프로그램의 준비/진행 중보기도사역 : 예배 / 집회를 위한 중보, 청원 기도 주중 기도 모임방, 플로리다 DTS(연 1회) 가정 사역 : 세대 별 가족 수양회, 가정 세미나 등의 기획 / 진행을 담당 레포츠 사역 : 각종 레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친교 활동 문화 사역 : 공연, 출판 등 각종 문화 콘텐츠 기획 / 진행, 연극팀, 핸드벨 팀 등의 운영을 담당 목회후원 사역 : 주일 및 모임 시 식사, 주방 관리 담당
교회 외부 사역들	엠마오 캠프 사역 : 연 2회의 엠마오 캠프 진행 및 다수의 선교지 엠마오 캠프 진행 담당 전도 사역 : 지역 내 한인들을 향한 전도 활동, 목요전도대 연중 전도 집회 기획 및 주관 국내 선교 사역 : 네트워킹 사역 관련 업무와 미국 내 선교 프로젝트 담당 국외 선교 사역 : 목장을 통한 선교지 후원 프로젝트, 각종 단기선교, 선교사방문/선교집회주관 담당 대외 협력 사역 : 교회 이외의 외부 단체들과의 연결 및 협력 사업 담당(한인회 후원 등)
행정 및 관리 사역들	행정 사역 : 교회 사무실 업무 중심, 각종 행정 업무 담당 역사기록 사역 : 교회 역사에 관련된 자료 수집, 보관, 자료집 발간 등을 담당 관리 사역 : 교회 건물 및 각 설치물 유지/보수/관리 담당
교육부 사역들	어린이 교회, Youth / EM, 한어 청년부, 70대 이상 실버 선교회, 한글학교, 열린 도서관,
위원회 사역들	재단 / 장기 발전 위원회 : 교회 재산 관리 및 유지 담당 재정 위원회 : 현금 계수, 재정 운용 담당 공천 위원회 : 교회 임원 및 사역 책임자 인선 담당 목회협조 위원회 : 목회실 인원 충원 및 인사 담당 업무 선교 위원회 : 중, 단기 성교 정책의 심의 및 결정 장학 위원회 : 각종 장학 사업 담당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교회 내 사역은 큰 틀로 총 6개의 사역으로 나누

어진다. 이러한 사역들은 교회의 성장, 그리고 사역자들의 충원과 배치, 또한 사역의 영역들이 확장되는 가운데 각 세부 사역들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6가지 사역의 큰 틀 가운데 유지되고, 확장될 것임을 밝힌다.

3.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지역적 상황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있는 남부 플로리다 지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95번 프리웨이가 있는 해안선을 따라 아래위로 1시간 30여분 거리의 지역들을 포괄하는 곳이다. 지역 한인 인구를 적게는 3천명, 많게는 5천명으로 잡고 있는데, 이들은 한곳에 집중하여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시간 거리의 지역들에 넓게 퍼져 분포 하고 있다.

지역 내 한인 교회는 약 20여개가 있는데,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외에는 대개 40-50명 정도의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 내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인회가 구심점을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주축이 되어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지역 내 교회 연합 운동 및 사역들, 한인회 후원, 노인대학 운영 등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예정해 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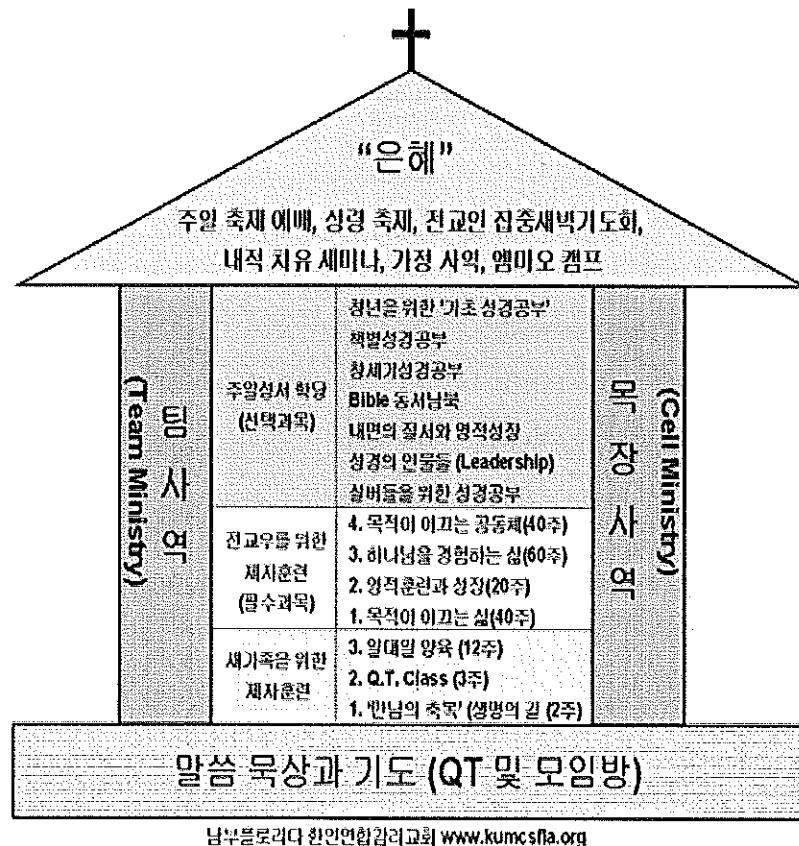
만 명 이하 한인 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민 교회가 그 지역 전체 한인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교회가 한인 인구수에 비해 많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로 인한 상처를 입은 역사를 지니고 있기에 한 교회가 지역 한인의 10퍼센트 이상을 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교회에 잘 뿌리내려진 양육 System을 통해 사역자를 훈련, 양육하고 있고, 은사와 지역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에 근거한 필요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역 팀들을 운용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제 3 절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배우는 목회'를 지향하며 수년 간 실천하면

서 체계적인 양육 System을 구축하고 시행함으로 교회의 성도들과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양육 System의 1단계는 변화를 추구하는 기초 제자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 2단계는 성장을 추구하는 비전 클래스와 주일 성서학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단계는 성숙과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 그림 4 >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¹⁰⁹⁾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은 ‘집’구조(House Diagram)이다. 이 ‘집’은 기초와 기둥, 그리고 지붕으로 이루어지며, 이 ‘집’ 안에 새 가족, 전교우 필수 과정, 선택 과정을 배치하는 구조이다. 남부 플로리다 한

109)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 구조인 House Diagram은 앞서 제시한 청년 목회자 연합의 House Diagram과 아주 흡사하지만, 미국 IVF와 청년목회자연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장찬영 목사의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순수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와 공동체에 근거하여 만든 구조라고 한다.

인연합감리교회는 먼저 온 성도들의 말씀 묵상과 기도(Q. T. 및 모임방)를 기초로 양육 System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 두 기둥, 곧 팀 사역(Team Ministry)과 목장 사역(Cell Ministry)을 기둥으로 새 가족을 위한 제자 훈련이 있고, 전 교우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¹¹⁰⁾(총 160주)이 있고, 이후 매 주일 마다 선택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과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은혜”라는 지붕 아래 존재하고 있다. 이 은혜는 매 주일 드러지는 공적 예배와 기타 성령 집회, 집중 새벽기도회, 내적 치유 세미나와 엠마오 캠프 등을 통해 공급을 받는다. 계속해서 이러한 House Diagram 양육 System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제 1 단계(변화반)

제 1 단계는 기초 제자 훈련으로 ‘만남의 축복’(생명의 길, 4주 과정), Q. T. 및 기도학교(12주), 그리고 일대일 양육(16주)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에 등록된 모든 이들을 위한 과정으로 삶,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를 추구한다.

생명의 길 4주 과정은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하며 교회의 비전과 목표, 사역, 선교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Q. T. 및 기도학교(12주 과정)와 일대일 양육(16주) 과정으로 연결된다.

Q. T. 및 기도학교는 12주 과정으로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을 교재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기도학교와 더불어 배우는 과정이다. 일대일 양육은 일대일로 한 명의 성도를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으로 두란노에서 발행한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공부**라는 교재를 사용한다. 그리고 교회 내 새 가족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양육자는 일대일 제자 양육 양육자반 과정(16주)을 마친 이들로 세워진다.

이렇게 기초 제자 훈련이 마쳐지게 되면, 제 2 단계(성장반)인 비전 클래스 및 주일 성서학당으로 옮겨간다.

110) 이 필수 과정은 교회의 사역, 곧 목장, 사역 팀 등의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성도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또한 교회의 직분(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역과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 2 단계(성장반)

제 2 단계는 비전 클래스와 주일 성서학당으로 나누어진다. 비전 클래스는 전 교우들을 위한 제자 훈련으로 필수 과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일 성서학당은 선택과정으로 정해져 있다.

비전 클래스를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릭 워렌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교재로 담임목사가 직접 인도한다.(40주) 그리고 이후 리차드 포스터 목사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교재로 묵상, 기도, 금식, 말씀 공부, 단순성, 순종, 섬김, 고백, 경배 등을 배운다.(26주) 또한 헨리 블랙가비 목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교재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60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라는 책을 교재로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 나와 내 안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배운다.(40주) 이렇게 비전 클래스에 속한 과정들은 기존에 발간되었고, 여러 교회에서 적용하는 가운데 검증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

주일 성서학당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성경공부로서 선택 과정으로 총 8개 과목이 개설되어 평신도가 리더가 되어 진행된다. 이 과정에는 ‘책별 성경공부’, ‘창세기 성경공부’, ‘성경의 맥을 잡아라’,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전도폭발 훈련’, ‘성경 통독 과정’, ‘청년 성경공부’, ‘실버 성경공부’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3. 제 3 단계(성숙반)

제 3 단계는 제 2 단계의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의 각종 사역, 목장, 양육,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를 양육시키는 과정으로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선교 학교와 리더십 학교, 상담과 치유 학교의 2개 과정이 있으며, 이 중 리더십 학교는 각 사역장과 목자, 목녀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되어 있다.

선교학교는 선교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한 과정으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우고, 직접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경험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상담과 치유학교는 각종 상담, 치유학교의 과정으로 부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차아 개발 원리와 기술 등에 대해서 배운다.

4. 기타 프로그램 들

이러한 양육 System 안의 과정들은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0주까지의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만, 단기간에 집중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헌신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열리는 성령 축제(부흥회), 내적 치유 세미나, 그리고 TD(뜨레스디아스)를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맞게 변형한 엠마오 캠프와 가정 사역, 또한 각 분기 별로 집중 새벽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전교인 새벽 기도회, 그리고 매 주일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 등이 있다. 이는 양육 System 밖의 또 다른 양육 프로그램들로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5. 몇 가지 비평들

이러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는 있지만, 몇 가지 부족한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판과 비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듯 더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첫째로, 교육학적 이론들에 대해 취약한 System이다. 교육학적 발달이론, 그리고 앞서 언급한 리차드 R. 오스머의 신앙 입체적 이론을 근거로 양육 System을 좀 더 체계화 및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영성적 영역들의 성장을 포함으로 입체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안의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는 기존에 검증된 교재들이기에 무리 없이 교회 내 양육 System과 프로그램들에 접목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발전적인 양육 System 구축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각 단계별로 추가 되는 과정과 기존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분석, 정리하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형편에 맞게 교재들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양육

System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제자 훈련의 기간에 대한 문제이다. 4단계 총 160주에 이르는 과정들은 3년이 조금 넘는 과정들로 단계와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기간을 축소하고 커리큘럼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긴 양육 System 안에서의 시간은 양육자들을 지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양육 System의 구체적인 목적 진술과 이를 운영하는 원칙들과 그 방법론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적 진술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이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 System의 운영 원칙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상황에 따른 원칙 적용이 일관성이 없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는 양육 System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체 양육 System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양육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정리된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 변경된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아 양육자들의 관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제 4 절 요약

장찬영 목사 부임이후 2004년부터 시행된 이러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문제점 수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배우는 목회’를 지향하는 가운데 세워진 이 양육 System은 총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제 1 단계, 성장을 추구하는 제 2 단계, 그리고 성숙과 열매를 추구하는 제 3 단계의 과정은 단순하지만, 짜임새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양육 System 안에 속한 성도들이 훈련을 통한 성장의 과정 가운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System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양육 System의 ‘집’ 구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목회의 전반적인 Focus를 양육에 두고 있기에 가능한 System이다. 이러한 양육 System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삶과 인생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몇 가지 단점들을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추가해야 할 점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특징들과 수정 및 보완 추가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비판적 평가와 미래적 비전을 가지고, 몇 가지 구체적인 제언을 해 나가고자 한다.

제 6 장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미래적 비전

효과적인 양육시스템은 지성적이고 동시에 영성적이며, 의지적이고도 감성적인 접근방식을 포함한다. 본 장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의 양육시스템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하여, 현재의 양육시스템을 평가하고 그 특징을 살핌과 동시에 미래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 절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평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논의에 앞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어느 한 순간에 세워진 System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도 있었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를 지혜롭게 수정하고 변경하여 오늘의 System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 위에 개 교회의 상황에 접목하여 양육 System을 구축하는 일은 장기적인 관점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1. 구조적 특징

앞서 논의를 했던 것처럼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집'의 구조(House Diagram)로 표현된다. 이렇게 '집'으로서 설명되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 맺는 양육 System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들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 체험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램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목회 전체가 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고는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 양육 System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기에 부흥회나 기타 집회 등은 양육 System의 체계라기보다는 목회의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앞서 논한 것처럼 ‘집’ 구조¹¹¹⁾는 양육을 교회 내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의 전반으로 보는 관점 하에 가능한 구조이다. ‘집’구조는 예배, 특별 프로그램, 양육 과정, 돌봄과 섬김 등의 목회 전반적인 사역들을 별도의 과정이 아닌 ‘양육’이라는 관점에 맞추고 구조화 시킬 때 가능하다.

이렇게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목회의 주된 초점을 성도들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한 성숙에 두고 있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은 단순하게 설명된다. 3단계로 표현된 이 System은 기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제자화의 단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라나감을 추구하는 성장의 단계, 그리고 헌신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추구하는 성숙의 단계로 단순화되어 있고, 이를 돕기 위한 교회 내 영성 프로그램들을 배치함으로써 양육 System 안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2. 기초의 강조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기초는 말씀 묵상(Q. T.)과 나눔이다. 성도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로 기록해 진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양육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는 다른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으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집회에 참석했었다는 고백 보다 중요한 것이다. 성도들은 날마다 그 신앙이 자라가야 하기에, 또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그 기본인 말씀과 기도는 강조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교제는 성도의 신앙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한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

111)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처럼 집 구조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자라가야 하는 성도의 신앙을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조다.

육 System 안에서 꾸준히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의 묵상과 이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이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삶이다. 인생, 그리고 신앙의 삶 전체 가운데 날마다 지속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기 때문이다. 비전과 이를 이루기 위한 헌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난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산상수훈 결론적 말씀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¹¹²⁾

많은 교회가 교회 내 양육 System을 구축 할 때 가장 쉽게 외면을 당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과 기도’라는 신앙 및 영성의 기초이다.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양육 System의 구축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러한 것을 목회와 양육 System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3. 수정 보완할 점들

본 연구자는 앞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에 대한 비평적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수정 보완, 그리고 추가해야 할 점들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교육학적 이론들에 대해 취약한 System이기에 교육학적 발달이론과 리차드 R. 오스머의 신앙 입체적 이론을 근거로 신앙의 지성적, 의지적, 감성적, 신비적 영역들을 다루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다. 각 단 계별로 추가 되는 과정과 기존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요소들을 분석, 정리하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형편에 맞게 교재들을 개발할 수 있다면 양육 System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제자 훈련의 기간에 대한 문제이다. 4단계 총 160주에 이르는 과정들은 3년이 조금 넘는 과정들로 단계와 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기간을 축소하고 커리큘럼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

112) 마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 5장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삶에 적용하여 행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산상수훈의 결론적 말씀을 주신다.

다. 너무 긴 양육 System 안에서의 시간은 양육자들을 지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양육 System의 구체적인 목적 진술과 이를 운영하는 원칙들과 그 방법론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목적 진술이 없다는 것은 방향 없이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또한 양육 System의 운영 원칙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상황에 따른 원칙 적용이 일관성이 없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는 양육 System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체 양육 System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여 양육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정리된 자료들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 중간 변경된 내용들을 수정하지 않아 양육자들의 관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판단이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3차 3개년 장기계획¹¹³⁾을 선포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교회가 장기적으로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한 양육 System의 구축을 위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근거하여 공동체 교회를 위한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절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제안

여기에서는 공동체 교회를 위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실제적인 양육 System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이 제안은 공동체 교회를 위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으로 개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어느 정도 변형이 가능하며, 개론적인 의미에서의 제안은 원칙, 방법론, 커리큘럼, 소그룹 및 팀 사역의 배치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개 교회의 비전 Statement, 가치 선언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재편성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

113) 2008년 교회적으로 선포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3차 3개년 장기계획은 1차 3개년 계획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제자화하는 교회”(2008-2010), 2차 3개년 계획으로 “지역 사회를 품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교회”(2012-2014), 3차 3개년 계획으로 “1세와 2세, 다민족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2016-2018)에 대한 비전이다.

1.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목적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따라 지음 받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성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된 3차 3개년 장기 계획 선언에 근거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목적은 이렇게 진술될 수 있다. “1세와 2세, 그리고 지역사회와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제자로 자라도록 돕는 것에 있다.”

2.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원칙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적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공적 예배와 기타 영성 프로그램들은 양육 System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양육 System을 세우기 위한 또 다른 도구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거룩한 한 몸을 이루고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거나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는 각자가 다른 지체와 일체가 될 수 있는 공통된 생명이 있다. 즉, 모든 이들 안에 하나이고 또 하나 안에 모든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고전 12:27)¹¹⁴⁾

둘째, 확장(재생산), 곧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양육 System을 거쳐서 성장하고 자라는 구성원들은 또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함께 자라는 일과 공동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삶의 모범이다. 양육 System안의 리더, 구성원들은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삶의 모범, 곧 정직, 성실, 겸손, 관용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상호 작용을 통한 성장이다. 신앙의 성장은 인간관계라는 틀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그 관계의 훈련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114) Robert J.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상*, 106.

이러한 관계는 사랑과 섬김을 통한 온전한 소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영적 은사들을 발견, 훈련, 배치하는 일이다. 신앙의 성장 과정을 통해 선천적으로든, 관심에 따른 후천적이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훈련하여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3.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방법론

계속해서 이러한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로 소그룹(Small Group)을 기본으로 한다. 각 단계별, 곧 새신자반, 기초, 핵심, 심화 과정 등의 모든 과정은 일정 기간 동안 소그룹의 형태(일대일도 가능함)로 진행하며, 과정 후 교회 내 기타 소그룹¹¹⁵⁾에 소속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의 소그룹 리더들은 모든 양육 System을 거쳐 선발, 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방법론으로서 소그룹을 제시한 이유는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당위성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고, 관계를 통한 신앙 성장이 가능하게 해 주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따라 존재하고 있기에 상호 의존하며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의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의 관계나 독립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된 교회는 하나가 됨으로 일치성을 보여야 하고, 구성원이 된 각 지체는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바로 소그룹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소그룹은 목장사역으로 대표된다. 목장은 목자와 목녀의 리더십과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으며, 2주에 한 번 정도 모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변경과 수정을 제안한다. 현재 2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모임을 매 주 모임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2주에 한 번 모이는 소그룹 사역은 소그룹이

115)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소그룹으로 목장 System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사역 Team들은 Team으로서 사역장과 그 Member들로 구성된다.

가지는 유익과 장점을 활용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유지하려고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역동적이고, 활성화된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그 유익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각 분기 별로 각 소그룹(목장)의 홍보와 자랑, 그리고 그 유익들에 대해서 간증 등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교회는 소그룹 사역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 운영과 실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소그룹의 리더(목장의 목자, 목녀 등)들로 하여금 소그룹이 활성화된 타 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수정, 변경, 적용할 수 있는 Feedback System을 잘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그룹 사역을 전담하는 사역팀 구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고 바람직하고 잘 운영되는 소그룹에 대한 시상, 사례와 간증의 발표 시간, 찬양 또는 율동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갖은 시도와 노력들을 경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람이 중심이 된 소그룹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소그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그룹을 깨뜨리는 가장 큰 적은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다. 그리고 내가 주도하여 이끈다는 사람이 중심이 된 개념들도 건강한 소그룹을 위협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영성, 곧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와 목회자들은 소그룹 리더들(목자, 목녀 등)이 항상 이러한 의식 속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장으로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안에서의 소그룹과 교회 소그룹 사역인 목장 사역, 그리고 각 사역 Team들로 구성된 Team Ministry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기타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로 기초 훈련을 강조한다. 기초 훈련이라 함은 모든 과정 가운데 개인적

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공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록한 한 몸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신앙의 기반이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 또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장도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하나님은 몇 가지 도구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 생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예배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생활은 성도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 예배의 훈련을 통한 개인 신앙 성장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먼저, 말씀과 관련하여, 맥체인 성경읽기표¹¹⁶⁾와 기타 성경읽기표 등을 배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Q. T.로 알려진 말씀 묵상 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묵상 가운데 깨닫고, 느끼고,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Q. T. 모임방도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생활화를 위해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개인 주간 신앙생활 점검표배부 사역이다.

116) 맥체인 성경읽기 표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만든 것으로 맥체인 성경읽기 표는 매일 내장을 읽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 표를 통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네 시대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읽게 됨으로써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속사의 흐름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익으로는 이렇게 읽음으로 이를 통해 성경의 맥을 보다 쉽게 잡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 목적을 평행선을 그으며 따라가며 읽게 되는 것이다.

<표 7> 개인 주간 신앙생활 점검표¹¹⁷⁾

개인 주간 신앙생활 점검표									
월 일 - 월 일까지 그룹 : 이름 :									
# 작성요령 : 빈 칸 아래대로 해당 점수를 기입하십시오. 1) 성실 이행:2점 2) 불성실 이행:1점 3) 불이행:0점									
#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 표를 매일 작성하되 작성치 못한 날은 빈칸으로 두십시오.									
항 목	내 용	금	토	주 일	월	화	수	목	계
성경읽기	하루 3장 이상								
기도생활	매일 30분 이상씩								
적용생활	매일 말씀에 비추어								
점수합계	매일확인								
※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시 66:18)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딤후 4:5)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표 7>에서 보는 개인 주간 신앙생활 점검표는 성도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성도 개개인이 주중 하루, 정해진 시간을 택해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개인의 예배 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이 프로그램은 원래 중보기도 사역을 할 때 기도자의 훈련을 위하여 제시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해 본다.

셋째, 사랑과 관심을 통한 소통이다.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주중 한 번 진행되는 모임 뿐 아니라 모임 전, 모임 후, 그리고 기타의 상황에 구성원들이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모임 시 빈자리를 마련하여 두고, 그 자리를 채워야 할 영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리더십들은 모든 개인적인 성향과 요구들을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117) 개인 주간 신앙생활 점검표는 목장 모임, 그리고 양육 단계별 소그룹 모임, 각 사역 Team 모임 시 배부 각 그룹 리더들이 배부, 회수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한다. 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개인 신앙 훈련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다.

한다. 그리고 교회 내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사랑의 사역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랑과 관심을 통한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넷째, 신앙 발달이론과 리차드 R. 오스머의 신앙의 입체적 이해 이론에 근거하여 양육 System 안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각 단계별 양육 System 안에 신앙의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영성적 영역이 고르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피드백(Feedback)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모든 과정 중 이 피드백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수정하고, 상황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는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기별로, 혹은 교회의 형편에 맞게 각 과정의 리더들의 모임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소그룹 사역을 통한 사랑과 관심을 측정할 수 있도록 피드백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 제안

이러한 목적과 원칙들에 근거하여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의 커리큘럼은 바이블 아카데미로 명명되어지며, 1단계(변화) 기초 제자훈련과 2단계(성장) 비전 클래스, 3단계(성숙)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단계별 모든 과목은 16주 과정(3학점)으로 16주 이상 소요되는 과목은 다음 학기에 계속하여 진행된다. 18학점, 곧 16주 과정을 6번 이수하면 총 96주인데, 이렇게 근 2년여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증서를 받아야 교회 내 각 사역장과 목사 및 목녀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주일 성서학당은 교회 내 공통 과정으로 변경하여 가격 구분 없이 교회 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과정으로 편성한다. 이러한 공통 과정 내에서는 양육 System 안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각 양육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양육 System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여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양육 System의 구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이 제언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각 단계

별 양육 System을 제안한다. 여기에서의 세분화된 양육 프로그램은 리차드 R. 오스머의 신앙의 입체적 이해 이론을 참고하여 구성할 것임을 밝힌다.

가. 양육 1단계 기초 제자 훈련 과정(변화)

먼저 1단계 기초 제자 훈련 과정이다. 다음 <표 8>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양육 1단계 기초 제자훈련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8>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양육 1단계 기초 제자훈련 과정

구분	신앙의 4가지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지성적 영역 (신념)	감성적 영역 (관계)	의지적 영역 (헌신)	영성적 영역 (신비)
1단계 (입문- 멤버십 단계)	생명의 길(4주)	Q.T. 및 기도학교 (12주)	일대일 제자양육 (16주) 성경적 세계관 (8주)	개인 및 공적 예배, 기타 영성 집회 참여를 통한 은혜 체험 독려
목적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변화			

<표 8>을 통해 살펴 본 1단계 기초 제자훈련 과정은 먼저 지성적 영역으로 생명의 길(4주)이라는 과목으로 담임목사가 인도하며 교회의 비전과 목표, 사역, 선교 등에 관한 사항들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다. 계속해서 감성적 영역의 단계로 들어가 신앙의 기초가 되는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의지적 영역인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16주)으로 구원의 확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방법, 순종하는 삶 등을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교회 멤버로서의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본 단계에서의 수정을 꾀한 것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 성경적 세계관(8주)이라는 과정을 새롭게 삽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질적,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세상, 사

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는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영성적 영역인 은혜의 신비를 지속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개인 및 공적 예배, 기타 영성 집회 참여를 통한 은혜 체험을 독려한다. 이러한 1단계 과정의 목표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개인 예배 생활 등 신앙생활을 통해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나. 양육 2단계 성장 과정(비전 클래스)

기존의 양육 2단계과정은 비전 클래스와 주일성서 학당으로 나누어진다. 본 단계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를 배울 수 있는 공동체 교회론이라는 과목(4주)을 추가한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교회론을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교회의 기능과 사명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 기존의 주일 성서학당으로 진행되던 양육 프로그램들을 교회 공통 단계 과정으로 분리한 점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일 성서학당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존의 양육 System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할 수 있고,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격려를 통하여 양육의 모든 과정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과정을 추가하는 가운데 이를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과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틀로 재구성하여 다음 <표 9>와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표 9>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양육 2단계 성장 과정(비전 클래스)

구분	신앙의 4가지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지성적 영역 (신념)	감성적 영역 (관계)	의지적 영역 (헌신)	영성적 영역 (신비)
2단계 (성장 단계)	목적이 이끄는 삶(40주) 공동체 교회론 (4주)	영적 훈련과 성장(26주)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40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60주)과 엠마오 캠프
목적	신앙의 성장을 통한 비전 확립과 헌신에의 결단			

<표 9>를 통해 살펴 본 2단계 성장 과정은 먼저 지성적 영역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과목(40주)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 교회론(4주)이라는 과목을 통해 한 몸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운다.

그리고 감성적 영역의 단계로 들어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과목(26주)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그리고 한 몸 공동체인 교우들과의 관계를 통한 신앙의 성장을 배우고 익힌다.

다음으로 의지적 영역으로 들어가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라는 과목(40주)을 통해 교회의 비전과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배우고, 공동체 안에 나와 내 안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목적이 이끄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비전 클래스의 마지막 과목은 영성적 영역으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목(60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들을 배우고, 교회 영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엠마오 캠프(2박 3일)를 통해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양육 2단계 비전 클래스의 목적은 신앙의 성장을 통한 개인 비전과 교회의 비전 확립,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헌신의 결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다. 양육 3단계 평신도 지도자 양성 과정(성숙)

계속해서 3단계(성숙) 평신도 지도자 양성 단계를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을 근거로 재편해 본다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3단계 평신도 지도자 양성 과정(성숙)

구분	신앙의 4가지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지성적 영역 (신념)	감성적 영역 (관계)	의지적 영역 (헌신)	영성적 영역 (신비)
3단계 (성숙 단계)	리더십 학교(12주)	상담, 치유학교 (12주)	선교학교 (12주)	Florida DTS 참여(11주 강의+ 1주 아웃리치 총 12주)
목적	신앙의 성숙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 군사로 거듭나게 함			

<표 10>을 통해 살펴 본 3단계 평신도 지도자 양성 단계는 신앙의 성숙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 군사로 거듭나게 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먼저 지성적 영역으로 리더십 학교(12주)를 통해 성경적 원리에 따른 리더십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섬기는 자의 모델을 배운다.

그리고 감성적 영역으로 상담, 치유학교를 통해 부부, 세대 간의 갈등 문제와 내적 치유의 부분들을 배우는 가운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계속해서 의지적 영역으로 선교학교(12주)를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배우고 참여하는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리고 영성적 영역으로 12주간의 집중적인 Florida DTS 훈련 참여를 통해 삶으로서의 신앙인, 제자,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양육 3단계 평신도 지도자 양성 단계(성숙)의 목적은 신앙의 성숙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 군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라. 공통단계 양육 프로그램(주일 성서학당)

또한 본 연구자는 현재 비전 클래스 과정과 주일 성서학당이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 2단계를 재편하여 비전 클래스 과정은 남겨 두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일 성서학당의 과정을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위한 공통 단계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다. 이 공통단계는 양육을 받고 있는 단계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차별 없이 제공되는 커리큘럼인데, 효과적인 양육을 받기위해서 양육체계에 들어오려 하는 성도는 물론 양육의 가장 성숙한 단계에 속한 성도들도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의 4가지 영역을 고려한 과정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 <표 11>과 같이 제안한다.

<표 11> 신앙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 공통단계의 양육프로그램(주일 성서학당)

구분	신앙의 4가지영역에 따른 프로그램			
교회의 기능	지성적 영역 (신념)	감성적 영역 (관계)	의지적 영역 (헌신)	영성적 영역 (신비)
예배				중보기도학교 찬양학교
교제		내면질서와 영적성장 각 취미 별 동호회 모임		
교육	각종 성경공부 (책별, 창세기, 청년, 실버) 성경 통독 과정		아버지, 어머니 학교	
봉사			각 사역 봉사 도우미 교육과 실습	
선교			전도 폭발 훈련	

<표 11>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회의 기능과 신앙의 4가지 영역을 고려하여 주일 성서학당으로 명명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통단계는 지성적 영역에 해당하는 교회의 교육 기능을 결합해 각종 성경공부 과목을 개설하여 각자 필요와 요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정으로 편성한다. 감성적 영역은 교회의 교제 기능과 결합해 각종 취미 동호회 모임과 내면질서와 영적성장(포스터) 과목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의지적 영역은 교회의 교육과 봉사와 선교 기능을 결합하여 교육 기능으로 아버지, 어머니 학교, 봉사 기능으로 각 사역 봉사 도우미 교육과 실습, 그리고 선교 기능에 전도폭발 훈련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적 영역으로 교회의 예배 기능과 결합하여, 중보기도학교와 찬양학교를 배치하였다.

이 과정의 특징은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인 예배, 교제, 교육, 봉사, 선교에 맞추어 양육 커리큘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하는 것이며, 이 공통 과정에 참여하지만, 교회 내 양육 System 안의 프로그램들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과정의 참여를 독려하는 장으로 삼을 수 있고,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끝가지 잘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해 주는 장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공통 과정의 모든 과목들은 훈련되고 검증된 평신도를 리더로 세워 목회자의 사역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만인 제사장으로서 평신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 헌신의 장으로서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5. 공동체 교회를 위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운영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양육 System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점들을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들은 모든 양육 System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리더십 그룹 합류 규정

먼저 교회 내 리더십 그룹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규정들이다. 리더십 그룹이라 함은 사역자와 행정 및 사역 팀의 리더와 멤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회 내 사역에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이들을 말한다. 기존의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에서 개인은 각 단계별 16주 과정을 이수하여 3학점을 받고, 총 18학점을 얻으면 졸업증서를 지급받아 각 사역장과 목사, 목녀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어 있다. 96주 과정을 이수하면 교회 내 리더십 그룹에 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고 양육 System 안에 들어와 교회 내 리더십 조직으로 들어오는데 이 기간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양육 System 안에서의 집중도와 그 헌신을 놓고 평가할 때 그 기간이 결코 짧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본 연구자가 제안한 양육 System 안에서는 1단계 40주 과정을 이수하고 2단계 총 170주 과정 가운데, 지성적, 감성적 단계 과정을 마친 70주, 총 110주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교회 리더십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보다 14주가 더 증가한 기간이 된다.

나. 각 과정 통과 규정

각 과정은 커리큘럼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각 과정 중 지

각과 결석 일수, 그리고 주어진 과제의 성실한 수행을 평가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를 이수할 때에 비로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성도가 각 과정을 통과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제자로 변화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강조

교회 내 리더십 그룹에 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양육 System 안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고, 교회 내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된 공통의 과정도 각 리더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계속 성장하여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개인 신앙 성화(聖化)의 모든 과정은 일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 특수 과정들

교회의 특수한 목적, 곧 직분자와 각 사역 리더, 그리고 교회학교의 교사 등을 세우기 위한 목적의 과정을 따로 세울 수 있다.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인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과정들을 양육 System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교회 리더십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노년의 성도들을 고려하여 실버 그룹을 통해 실버 대학, 또는 노년 성도들을 위한 성경공부 과정 등은 교회 내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된 공통 단계의 과정들 속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6. 요약

위에서 제시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동체 교회 양육 System은 “1세와 2세, 그리고 지역사회와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제자로 자라도록 돕는 것에 있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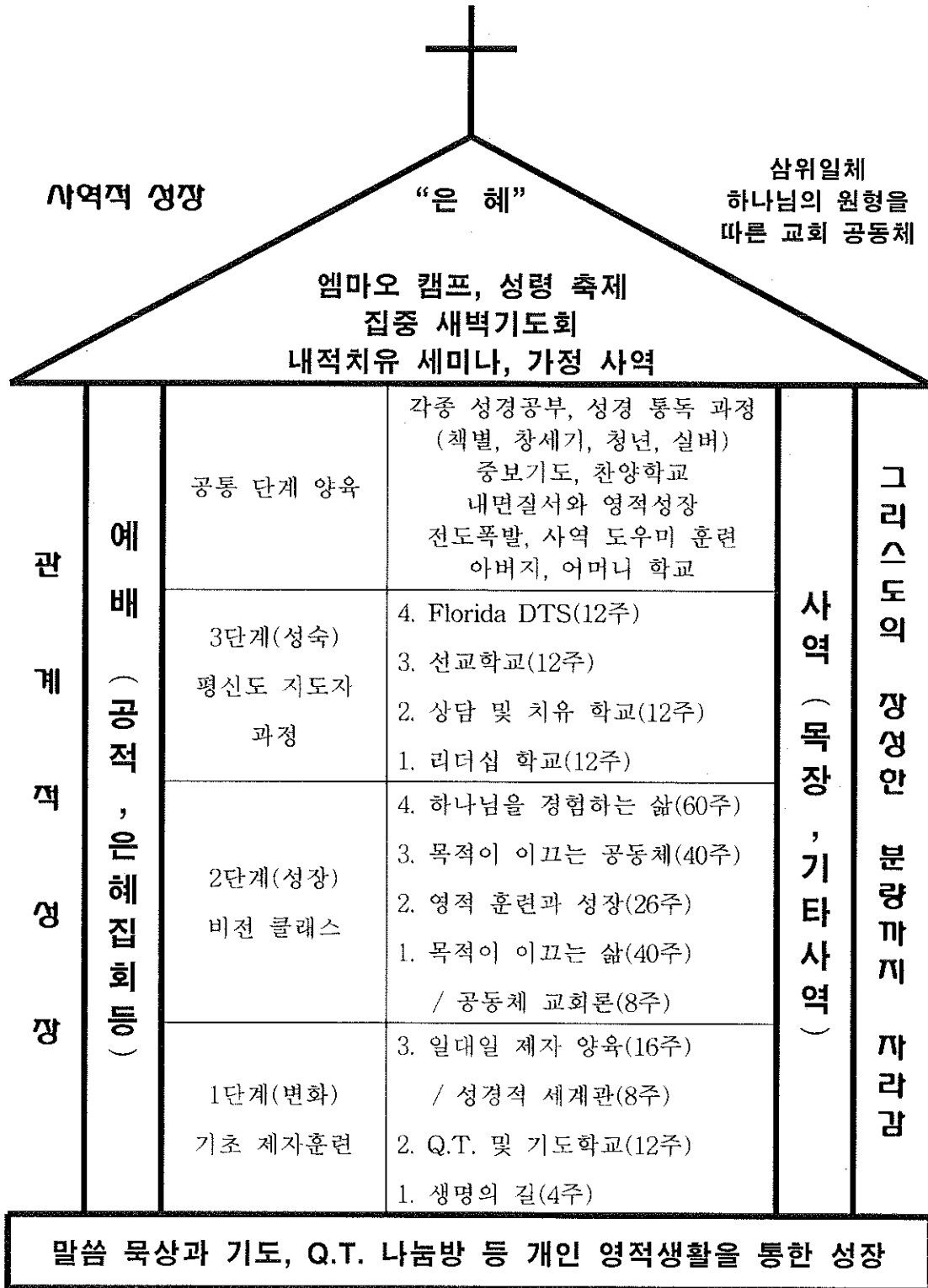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방법론 적인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 확장(재생산), 곧 재생산을 기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발견, 훈련, 배치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원칙들이다. 모든 사역에 이러한 원칙들은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양육 System은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방법론적으로 소그룹(Small Group)과 기초 훈련의 강조, 사랑과 관심을 통한 소통, 신앙 발달이론과 리차드 R. 오스머의 신앙의 입체적 이해 이론에 근거하여 신앙의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영성적 영역의 4가지 차원들이 고르게 touch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과 사역들의 피드백(Feedback)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육 System의 미래적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육 System을 <그림 5>와 같이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House Diagram을 그 기초로 하여 기존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인 House Diagram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 제안한 것이다.

<그림 5> 공동체 교회론에 근거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지만, 공동체적 교회의 양육 System의 구조를 House Diagram은 잘 표현해 주고 있고, 아래부터 위로 진행되는 양육 과정의 설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성도의 신앙 성장의 목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구조이기에 택한 것이다.

위의 <그림 4>에서 제시한 양육 System은 기존의 남부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몇 가지 수정과 추가 보완을 한 System이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자면, 이러한 양육 System의 House Diagram은 통일성과 단순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표현한 구조이기에 그대로 그 형태를 표현하고자 한다.

둘째, 집의 기초 부분으로 신앙의 기초인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의 훈련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교회와 신앙의 기초는 이러한 말씀 묵상과 적용, 그리고 실천적인 기도의 기초로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둥의 부분이다. 기초 못지않게 중요한 기둥 부분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의 생활, 그리고 작은 교회로서의 목장과 기타 사역들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와 그 지체로서의 신앙의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부분이다.

넷째는 몸의 부분이다. 몸의 부분에는 교회 양육 System 내의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이 속해 있다. 아래(1단계 기초제자훈련)로부터 위로(3단계 성숙반), 그리고 자격제한 없이 교회 내 모든 이들에게 개방된 공통의 과정의 전체가 바로 몸의 부분인데, 이러한 기둥과 몸의 부분은 관계적 성장을 말하는 부분이다.

다섯째는 지붕의 부분으로 집의 윗부분이다. 이 부분은 사역적 성장의 부분으로 교회 내 각종 집회와 사역들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오는 신앙 성장을 기대하는 부분이다.

특히 양육 System의 몸의 부분에 해당하는 양육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양육의 각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존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System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약간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 차이점은 첫째,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과정을

새롭게 삽입하였다.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2단계에서는 공동체 교회론이라는 과정을 삽입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허락하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교재의 개발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바이블 아카데미 과정에 있는 주일 성서학당의 과정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되는 공통 과정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 공통 과정의 특징은 교회의 다섯 가지 기능을 모두 접할 수 있고, 배우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통 과정 내에서는 양육 System 안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 각 양육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할 수 있고, 양육 System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들을 격려하여 끝까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운영 원칙에 관한 것으로 2단계 과정의 첫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과 공동체 교회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마치면, 교회의 리더십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각 사역장과 목자 목녀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성숙을 추구하는 3단계 과정은 리더십 학교, 상담과 치유학교, 선교 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Florida DTS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리를 하였다. 이 과정이 마무리 되더라도 공통과정의 사역자나 참여자가 되어 지속적인 성숙을 통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한 방편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엠마오 캠프와 성령 축제(부흥회), 그리고 각 분기 첫 주에 일주일 간 실시되는 집중 새벽기도회, 또한 내적치유 세미나와 가정 사역 등을 통하여 한 몸으로서의 성도 신앙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양육 System은 House Diagram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적 성장, 관계적 성장, 사역을 통한 성장이라는 3 단계의 성장을 추구한다. 신앙 성장과 영적 기초로서의 개인적 성장은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신앙서적 독서 등을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의 일대일 만남을 통해 성장을 꾀하는 것이다. 관계적 성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근거로 소그룹과 팀 사역을 통한 한 몸 공동체 내의 관계를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사역을 통한 성장은 교회 내 영적

집회, 곧 부흥회, 사경회, 내적치유 집회, 엠마오 캠프, 집중 새벽 기도회 등의 공적 집회 시역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양육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제 7 장 결 론

“공동체 안에서의 배움과 성장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가르쳤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¹¹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탁에서, 산등성이에서, 그리고 성정에서, 그의 이야기와 가르침, 그리고 교훈들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성숙해 졌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시작되었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과 성숙은 교회로서 존재하는 성도의 신앙과 이 땅에 사명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단순한 성경공부와 영적 독서 등을 양육 System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하는 것은 이제 지향할 때가 되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통한 영의 열매¹¹⁹⁾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변화되어야만 한다.

서두에서 이미 밝혔듯이 한국 교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근거한 공동체적 교회로의 전환이다. 무너진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한 한국 교회의 갱신과 변화는 지금의 시대와 상황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교회로의 전환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교육학적인 이론들을 점검하는 가운데, 분명한 방법론적인 틀을 가지고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양육 System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성준 교수의 다음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118) Robert Schnase, *열매 맺는 성도의 다섯 가지 실천*, 이은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10), 97.

119)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에 펼치는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회로에락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비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조가 하나님의 비전과 그 존재 목적에 맞게 변해야 한다.¹²⁰⁾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펼쳐내고, 교회를 향한 비전을 충실히 수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고 여겨지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양육 System을 점검하면서 공동체 교회를 지향하는 양육 System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장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공동체 교회론에 대한 것으로서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교회의 미래는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술했다. 왜냐하면 진정한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양식이요 바램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양식인 페리코레스시적인 상호 섬김과 상호 순환의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의 효과적인 양육 System은 반드시 필수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임을 기술했다.

3장에서는 양육에는 신앙공동체의 사회화와 더불어 의도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며 신앙양육에 있어서는 지적인 신념에 해당되는 지성적 영역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해당되는 감성적 영역,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해당되는 의지적 영역과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영성적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양육이 일어나야 함을 기술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교인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설정하고 각 과정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교회들의 계획된 커리큘럼인 양육 System을 살펴보며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 일대일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 멘토링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 셀을 중심으로 하는 양육체계, 그리고 청년 목회자 연합의 House Diagram을 통한 양육 체계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공동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양육 System을 언급하면서, 한국 교회 양육 System의 한계 및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120)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2), 142-143.

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이 무엇인지 비전과 그 필수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과정들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공동체적 교회 양육 System으로서 House Diagram을 소개하였고, 이를 근거로 공동체적 교회론에 근거한 양육 System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그 목회적인 상황들을 돌아보고 분석하는 가운데 공동체적 교회를 위한 양육 System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연구의 토대를 기술하였다.

6장에서는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미래적 비전에 대해 다루면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을 평가하는 가운데, 그 구조적인 특징, 곧 House Diagram을 토대로 세워진 양육 System의 장점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 System에 대한 비평들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공동체 교회를 위한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양육 System의 목적과 원칙들, 그 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양육 3단계와 공통 단계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수정된 House Diagram을 그림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명(비전)공동체이다. 또한 교회 내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성장, 성숙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도록 양육, 훈련을 해야만 하는 양육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을 돌아보자. 교회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어가고, 물질, 물량주의적 가치관과 한민족 고유의 유교, 불교, 사머니즘의 문화 풍토,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현상 속에서 삼위 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분열과 갈등, 대 사회적 영향력의 축소와 비판 등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본 논문은 작성 되었다. 또한 신앙성장이라는 과제 아래 점점 이기주의 풍토가 만연되고,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외면되어가는 교회 내 양육 프로그램들과 그 운영의 주먹구구식 방법에 대한 고민도 그 한 원인이었음을 밝힌다.

전통적인 교회 구조의 문제점은 이미 서두에서 밝혔듯이 참된 사귄(영적 코이노

니아)이 적고,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모든 교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것은 교회의 사역과 직책의 한정과 불신자의 완전한 전도가 어렵기 때문이다.¹²¹⁾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신도가 참여하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 참된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 그리고 전 교인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기도 생활을 권면하고 지속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공동체 교회론과 이에 근거한 양육 System은 이러한 필요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한 양육 System이 절대적인 양육 System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를 극복하고, 보다 성경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와 그러한 교회의 양육 System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각 교회의 실정에 맞게 본 논문이 제시한 양육 System을 신중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보기를 권유한다. 그런 후에 각 교회의 양육 상황에 따른 적용의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는 그 필요에 따라 유연성 있게 수정,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논문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본 논문이 제시한 양육 System 내의 커리큘럼 교재를 개발하는 것과 양육 System에 따른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하나의 교재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아마 그것은 또 다른 연구자의 작업이며 우리 모두의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양육과정을 다 마친 성도들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양육 System을 통하여 교회의 성인 양육에 대한 좋은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성인 양육의 다양성과 필요성에 맞춘 성인들을 위한 더욱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양육 System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논문을 마친다.

121)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152.

참고 문헌

1. 국내 서적

-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 _____.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개혁신학, 2005.
- 김병철 외 3인 저. *기독교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양서원, 1998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 문석호.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 추, 1998.
- 박건. *멘토링 목회전략*. 서울: 나침반출판사, 2002.
- 배종석, 양혁승, 류지성.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 서울: IVP, 2008.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출판사, 1984.
- 온누리장로사관학교. *양육*. 서울: 온누리교회, 2004.
- 유성준.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도서출판 KMC, 2012.
- 유화자. *멘토링의 성공적인 양육*.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9.
- 이성희. *디지털 목회와 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원규. *종교 사회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이유정. “교회의 공동체성, 예배에서 시작한다.” *목회와 신학*. 2012년 5월호.
-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정민승. *성인학습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10.
- 주선애. *성서와 생활*. 서울: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73.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05.
- 최동규. *교회 성장,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서울: 두란노 목회와 신학 2012년 1월호.
- 최영태. *건강한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양육체계*.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허남기. *전교인 제자화를 위한 단계적 커리큘럼의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7.

황준석,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새가족 양육체계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2. 번역 서적

Banks, Robert J.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두란노 출판부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Comisky, Joel.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 NCD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Crabb, Larry.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장성준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5.

Donahue, Bill. *월로우크릭 교회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1997.

Donahue, Bill &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라*.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Frazer, Randy.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3.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1.

Murray M. *멘토링: 오래된 지혜의 현대적 적용*. 이용철 역. 서울: 김영사, 2005

Neighbour, Ralph W. Jr. *셀교회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Nicolas, Roan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규 역. 서울: IVP, 1986.

Osmer, Richard R. *신앙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사미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Stevens, Paul and Pil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Saucy, Robert L.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Schnase, Robert. *열매 맺는 성도의 다섯 가지 실천*, 이은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0.

Snyder, Howard A, *교회 DNA*.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Wyckoff D. Campbell, *기독교 교육과정의 이론과 설계*. 김국환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0.

3. 외국 서적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rdmans, 1996.

Miniear, Paul S. *Image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ita of
Jeong Soo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Beautiful Korean Methodist Church, Seoul

Personal Data:

Birthdate: May 30, 1968
 Birthplace: Pochun, Gyeonggi.
 Marital Status: Married to Young Mi Shin with two children, Jae Eun and Jae Sung
 Home Address: 112-1, Kisan-Ri, Ildong-Myun, Pochun-Si, Gyeonggi-Do
 Denomination: Korean Methodist Church
 Ordained: March 3, 1998

Education:

B. A.: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3
 M. Miss.: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2

Personal Experience:

08/2012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he Beautiful Korean Methodist Church,
 Seoul
 9/2009 to 3/2011: Senior Pastor
 of Columbia Korean Methodist Church,
 Columbia, South Carolina

- 2/2006 to 3/2009: Senior Pastor
of Dongsan United Methodist Church,
Houston, Texas
- 1/2005 to 12/2005: Senior Pastor
of Fellowship United Methodist Church,
Dallas, Texas
- 6/2000 to 4/2004: Assistant Pastor
of Holy Flame Methodist Church, Seongnam.
- 6/1998 to 6/2000: Assistant Pastor
of Samyang Central Methodist Church,
Seoul